[결과자료집]

2012한국거리예술센터 국제교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 라운드 테이블
# - 거리로 나선 예술

한국거리예술센터

# 목차

1. 프로젝트 소개 _4p

2. 토론 탐색 ; 사전모임 _7p

3. 토론의 글 ; 원고 _21p

4. 토론의 시간 ; 라운드 테이블 _31p

5. 부록 ; 언론보도내역&홍보물 이미지 _50p

# 1.
# 프로젝트 소개

**2012한국거리예술센터 국제교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 라운드테이블 <거리로 나선 예술> & 창작워크숍 <음식과 퍼포먼스>

거리예술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예술표현 형식으로 인정받으며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관습적 공간의 활용 및 확장된 관객의 수용이란 '거리예술'의 특성에 집중하여 야외 공연예술분야의 중요성을 국내에 인식시키며 기존 예술계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고자 한다.

일방적인 강연 형태의 형식적인 학술행사가 아닌, 보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며 비슷한 시기에 해외-국내예술가가 참여하는 창작워크숍을 병행함으로써 거리예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

## 1. 라운드테이블 <거리로 나선 예술>

- 일시 : 2012. 7. 26(목) 13시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 프로그램

| 구분 | 일정 | 주제 | 토론자 | 모더레이터 |
|---|---|---|---|---|
| 토론1 | 13:00~15:00 (120') | **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 -**레이몽 블라스**(퍼포머, 조형예술가)<br>-**유다희**(공공미술프리즘 대표)<br>-**윤종연**<br>(몸꼴 대표 및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br>-**최석규**(AsiaNow 프로듀서) | **조동희**<br>(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 |
| 쇼케이스 /리셉션 | 15:00~15:30 (30') | 창작워크숍 쇼케이스 <음식과 퍼포먼스> | | |
| 토론2 | 15:30~17:30 (120') | **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예술** | - **브뤼노 슈느블랑**<br>(극단 일로토피 예술감독)<br>- **박찬국**(논아트밭아트 디렉터)<br>- **유창복**(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br>- **임수택** (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과천한마당축제 예술감독) | **김종석**<br>(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 |

※ 상기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토론 내용**

***주변의 유사한 것으로부터 거리예술의 현재 파악하기***

비관습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거리예술'에 대한 담론을 조성하고 서로의 다양한 관점들을 나누고자 한다.

***사전 모임을 통하여 이슈 선정, 실질적인 토론의 장 마련***

일방적인 강연 형태의 형식적인 학술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며, 토론자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각 섹션별 3~4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거리예술 창작 워크숍과 연계하여 쇼케이스를 선보여 거리예술에 대한 흥미 유발과 전체 프로그램을 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 구분 | 토론1_<br>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 토론2_<br>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 예술 |
|---|---|---|
| **자기소개<br>/ 발제문 주제** | **나는 왜 관습적인 공간을 나왔나?** | **나는 누구를 위해,<br>누구와 함께 작업을 하는가?** |
| 토론 소재 |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접근 방식,<br>비관습적인 공간의 확장, 작업 공간 등<br>예술공간과 일상공간 | 시민, 주민, 관객, 대중, 군중, 불특정<br>다수,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

## 2. 창작워크숍 <음식과 퍼포먼스>

- 일시 : 2012. 7. 16(월) ~ 7. 26(목), 총 11일간
- 장소 : 문래예술공장 M30
- 대상 및 인원 : 국내 예술가 및 대학생 5~10명
- 내용 :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예술단체 일로토피(Ilotopie)가 국내 예술가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여 창작 결과물을 라운드테이블 및 국내 공연예술축제에서 발표

| 구분 | 내용 | 강사 |
|---|---|---|
| 창작워크숍 | 일로토피의 공연<기쁨의 메뉴 Menus Plaisirs>를 중심으로<br>한국버전 음식공연 제작 | 브뤼노 슈느블랑<br>(일로토피 예술감독)<br><br>레이몽 블라르<br>(퍼포머, 조형예술가) |
| 쇼케이스 | 라운드테이블에서 워크숍 창작결과물 발표 | |
| 공연 | 워크숍 창작결과물 국내공연예술축제<br>- 과천한마당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공연 | |

※ 상기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거리예술센터
- 주관 : 한국거리예술센터
- 문의 : 문화이끔이 꼴 02-2636-4861

# 2.
# 토론 탐색
# ; 사전모임

2012한국거리예술센터 국제교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 라운드 테이블 ; 토론자 사전모임

- 일 시 : 2012. 7. 5(목) 저녁 7시
- 장 소 : 홍대 카페더웨이
- 참가자 : 김종석, 조동희, 윤종연, 최석규, 박찬국, 유창복, 임수택, 신혜원, 김은옥, 최주연

***조동희*** : 포럼을 3,4년 전부터 했었다. 연장된 것이 올해 버전이다. 기존의 포럼이나 거리예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리예술이 뭐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고. 관습적인 예술표현 공간을 벗어난 공간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개념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거리예술을 개념화 해보자 한다. 올해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회를 해보려고 한다. 2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공간에 포커스, 두 번째는 관객에 포커스를 두고 기계적인 분류를 해봤다. 모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컨퍼런스라 하면 발제를 많이 하고 지루하고 그런데, 발제 같은 것 빼고, 본격적으로 토론 위주로 해보는게 어떨까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사전 모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컨퍼런스 때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통역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된다.

(토론자 인사)

***최석규*** : 이제 주류 예술에서도 거리예술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동희*** : 확장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 거리예술이 공간에 가서 공연을 하는건데 한두달 먼저 가서 공연을 해서 거리극이 나오고. 일정정도 대상, 공연주체에 대한 확장되는 것 같다.

***김종석*** : 거리로 나오면 다 예술이냐, 도대체 거리예술이 뭐냐, 분명히 층이 다르텐데,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거리예술이 아니고, 여러가지 축제다 거리 예술 하는데 왜 굳이 거리예술을 하느냐에서 '예술' 자가 붙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공간 밖이라는 거리에서 하는 것이 거리예술이 아니라 거리예술의 어떤 것이 거리예술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 수요 많고 관객도 많고 축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몰아가려고 하는데 정작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거리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명확히, 그게 개념적인 논의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거리예술 장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한편에서는 거리예술축제가 한국 연극제와 다른게 뭐냐, 연극 장르에 대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 사이의 어느 지점을 명확해줘야 한다.
일상의 문제가 들어갈텐데 동네에서 리어카에서 장사를 하는게 거리예술이냐, 그 형태로 하는데 거리예술이라 할 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공간에 대한 논의도 그럴거고. 그 지점은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분명히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텐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임수택*** : 거리예술 축제에 보면 굉장한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쇼윈도에서도 공연을 하고. 나는 요즘 와서 생각과 관심이 거리예술 축제와 예술감독, 예술가 중심인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다. 관객이 원하는 것, 거리의 관객이 필요한 것 보다 자기들이 예술적 성취감, 관심 이게 너무 휩쓸려서 사실 요즘 내가

많이 하는 말이 거리극이 거리를 떠났다라는 말인데. 나도 개인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큰 것 같다. 살롱(프랑스 거리예술축제) 같은데 가면 많은 작품들이 빼어난 감수성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나는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거리예술이라는 장르가 거리 애호가들에게 점령을 다하고 말았다. 관객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브뤼노랑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살롱 가서보면 거리예술이 외곽에서 하는데 전부다 전문가다. 어렵고. 차라리 시내 한가운데 하는 하다못해 버스킹이나 저글링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관객의 문제, 관객을 확장해야 하는데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 관객을 우리가 정확히 목표를 세워야 한다. 누구를 위해 공연하는지.

***박찬국*** : 미술에서 보면 시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깐. 저는 미술이 전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로 관객을 만나는 형식인데, 관객 자체를 불러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적다. 거기 있으면 봐준다는 개념이 강하다. 현대 예술이라는 것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깔려있고 제가 하는 퍼포먼스라는 건 퍼포먼스를 위한 퍼포먼스를 생각해본 적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상한 건축물을 지어서 어떤 공간에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한다.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가 저희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다. 일상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일상적인 형식을 통해서 마을이나 말을 거는 형식. 저희가 논아트밭아트인데 농촌지역이지만 Non Art But Art 이런거다. 그런 형식이다. 유통구조가 자체가 저희는 끝장난 유통구조인데 유지하기 위한 자본의 형식으로만 존재하니깐 그걸 더 들어가다 보니 일종의 연극적인 요소가 많아지는데 서사를 우리가 다 기획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거 자체가 하나의 퍼포밍 일수도 있고 전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하나있고 일상 활동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사람들을 어디 끌고 가서 요리를 자기가 하거나 시키거나 해가지고 이게 극은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모하냐 나눠먹고 끝나고 아무 그런게 없는데. 저는 그런게 연극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퍼포먼스라는 의식은 갖고 그런 발생들을 다 예감하면서 하는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목표가 다른 것 같기는 하다, 그런 것을 포괄해서 얘기를 진행한다면. 지금 말씀하신건 예를 들면 저글링이든 뭐든 시간이 압축된 상황 하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런 상황 자체가 놓여있는데 일상적으로 하지만 비일상적인 것, 그런 것과 관계라든지

***김종석*** : 구체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부 파트에, 관객의 확장과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보겠다. 제일 많이 나오는게 요즘 관객 참여인데, 참여의 방식이 뭐냐, 여태까지 참여가 물리적으로만 몇 명이 참여 했는냐, 누가 오면은 그걸 참여라 그러고 관객의 참여의 방식이 다양 할텐데 인원이 차서 들어오는 거를 한정 짓는게 아니냐, 참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참여를 얘기 하느냐, 공연자들이 관객이 있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참여하는 것, 여태까지 보면 관객들이 몇 명 들어왔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참여에 대해서 논의를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임수택*** : 참여에 대해서 가능성과 한계가 있다.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된다. 관객을 위해 공연 하는 건 예술을 포기하는 거다. 어디까지나 무슨 짓을 해도 적어도 예술을 포기하면 안된다. 그랬을 때 관객이 참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김종석*** :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얘기가 마니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마을이라는게 있을거고

***임수택*** : 문제 제기하고 싶은게 현대 한국사회에 공동체 있는가. 태어나면서 저절로 편입되는 거가 공동체 아닌가.

***김종석*** : 요즘은 공동체가 다양한 게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다닌 사람, 학교 다닌 사람끼리도 형성될 수도 있고 층위가 다양하다.

***임수택*** : 옛날에는 강제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선택 하는거다.

***김종석*** : 블로그와 카페도 있고, 다양한데 지금까지 공동체는 지역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 끌어 모으기가 힘든거다. 참여에 대한 양식도 다양해야 하고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공동체가 있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이야기 할 때 지역공동체만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공동체가 노조, 거기서 발생하는 자생적인 문화. 예술의 형태도 있고, 저희는 내 학부모, 성미산이 활성화 된 교육공동체, 공동육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지금 발생하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거기서 나온 예술은 뭔가. 우리 너무 한정적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임수택*** : 공동체가 지역, 국가 단위로써는 굉장히 의미 없는거가 되어버렸다. 그걸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축제에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하는걸 초반에 했었는데 이제는 이야기 안한다.

***김종석*** :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오는건가. 옛날에 강요된거라면 요즘은 선택적으로 뭔가 꾸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술적인 것들을 결합시켜 뭔가 만들려고 그 꿈이 있는 것 같다 최근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태까지와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부분이 경계에서 관객과 공연자, 굉장히 이분적으로 나눠져 있는게 조금 통합적으로 가는게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가 논쟁점이다. 그러나 분명히 전통적인 경계에 대한 부분이 통합되어 가는데 거기 중심에 거리예술이 있다. 그것이 이거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관객과 배우, 공간, 장르도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에서도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이 파트에서 이정도로 생각한다.

***조동희*** :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라 생각한다. 참여의 문제, 공동체 문제

***임수택*** : 내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게 관객 확장이라 그런데, 확장의 문제, 나는 확장시킬수록 좋다 생각한다. 소수만을 위한 예술행위가 많이 이뤄지는데 그걸 경계를 해야한다

***김종석*** : 소수의 관객을 생각하지 않고 초기 거리극이 했던 것처럼, 거리극이 왜 왔느냐 소외된 관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왔는데 오히려 거리극이 대중관객을 소외시키고 있다. 그 이야기인 것 같다.

***최석규*** : 1부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게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가자하고 한다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는 4명이 결국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라고 본다.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내 경험과 지금 던진 질문이다. 그 경험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공연형식에 변화에 따른 거리와 공연의 공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춘천마임축제에서 15년동안 경험치를 보면 처음에 소위말해서 순수 크라운 거리의 개념 그것이 확장이 돼서 서커스나 다른 공연으로 공간의 변화가 축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도입이 됐고 사이트스페이식이나 테크

날러지가 도입되면서 공간의 변화, 공연양식이 과연 공간변화를 축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던가, 실제로 축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스스로 변했었고 그거를 변화과정을 같이 했었다. 거기에서 던진 질문들이 그 경험치를 같이 15년동안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왔고 변화해 왔었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거리의 개념, 공동체 개념, 거리예술의 개념에 별로 관심 없다. 개념이라는 것을 정의했을 때 예술을 한정시키는 것 같다. 물론 중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어떤게 거리예술이냐, 개나 소나 다 거리예술이라 하기에. 결국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러면 예술이 뭐냐 라고 돌아가더라. 누가 어떻게 뭘 만드느냐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라서 저는 개념 자체보다는 그 경험 속에서 나왔던 형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던가와 거기에서 첫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은 춘천에서 20년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장소와 장소성이 상실된, 그니깐 장소와 무장소의 공간들 즉, 아파트는 장소성을 잃어버린 공간들에서는 과연 버릴 공간인가 여기에는 프로그램은 공연양식은 뭘 해야 될까가 던지는 문제의 숙제이다. 서울에서 살다보니깐, 서울에 5년에 살다보니. 그 작은 공간에 살던 내가 여기 왔 을때, 그래서 첫 번째 질문들은, 우리가 축제가 불가능하다는 대도시형에 공간문제에 따른 장소성들을 무장소 공간들 그게 제 관심사고 그 부분이 공연양식과 접목하는 테크날러지를 하반기에 증감현실이라는 작업을 가지고 아이폰이나, 관객하고 맞물린건데 인터렉티브, 자기가 참여하는 관객들이랑은 어떻게 뭘 해야 할 것이냐. 증강현실 방법을 가지고 북촌을 돌아다니는 방법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이렇듯이 무장소의 공간들을 공연 공연형식으로 만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그게 결국은 공연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처음에는 공연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 했었던 경운데 지금 무장소의 공간은 사이트 스페이스. 광주는 장소성이 있는 공간 거기에 역사, 전통 시간 아픔 삶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끄집어 낼 수 있는데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장소 무장소의 공간들은 공연형식들이 도입될 수 있을까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하고 싶은 것과 질문이 일단 제가 같이 얘기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젤 중요한게 장소 공간 개념들이 거리의 개념에서 확장되서 어떻게 바라봐야하나 내가 살고 있는 장소, 거리만을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장소와 공간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사이트 스페이식이든 여러 가지나 그런 범주에서 중요한 부분들 두 가지 질문들. 하나는 공연형식에 변화에 따른 공간 변화, 내 경험에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 예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러 것과 같이 관련된

***조동희*** : 무장소라는 개념은 어떤건가? 장소의 성격을 잃어버린건가?

***최석규*** : 장소라는 범위, 그건 어떻게 개념정리를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른 문제, 자기 스스로가 장소가 갖고 있는 혹은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성, 건축성, 사회성, 문화성 예를 들어 북촌을 가던, 피맛골을 가든 근데 아파트 공간들은 과연 그 장소성은 무엇을 바꿨는가 현대공간에 나는 그걸을 제 해석으로는 무장소의 공간으로 부른다

***임수택*** : 쉽게 이야기해서 성격이 없는 공간.

***최석규*** : 성격이 일률적으로 가는 공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거다. 똑같은 그런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건가.

***윤종연*** : 사실 거리예술센터가 바라보는 거리의 개념이 한정적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리극을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리의 물리적 의미, 그 다음에 공간성, 장소성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공간, 거리의 의미, 공공미술의 의미를 이런 것을 되짚어보고 시작하는게 좀 더 첨예하게 이야기를 물고 가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 출발해서

***유창복*** : 일상적인 의미가 더 가깝다 공연장 하면 예술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마을에서는 저녁때가 되면 놀이가 벌어지고 전시도 하고 아이들 판화작품들 엄마아빠들이 모임을 갖고 하는 그것이 좋은 점은 내가 공연 보러 가

야지 정색하고 맘먹고 가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일상이 연장인데 어느 순간 특별한 공간이 되는 일상의  변화의 경험들이 익숙하고 재밌고 편안하고 일상의 공간들이 새롭게 기억되는 순간이 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이 공연장으로 순간 변화하고 그게 좀 더 진화하면 카페라는 공간을 만드는데 카페에서는 물론 카페를 만들게 된 사연이 있다.  커피 아이스크림을 팔던 곳에서 어느 날 매주 수요일 음악회를 하는데 프로페셔널한 그런게 아니라 오카레나 연주를 하는 아빠가  몸이 근질근질 불어보고 가족들이 나와서 시를 낭송하고, 어느 날은 프로페셔널한 가수가 나와서 지나가다 얘기를 듣고 나도 하면 안될까. 찻집이었는데 너무나도 그럴듯한 공연장이 되버린거다. 1주일에 한번 그날은 장사도 잘되요. 그러다가 언젠가 극장을 만들었다. 극장은 아주 전문적인 공연장이었는데 동네사람들은 전문적인 극장을 내가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만나다니, 내 일상의 공간 속에서 만나다니, 되게 환호했다. 슬리퍼 신고 가도 되고, 마을회관 가듯이. 애들도 오면 떠들고. 근데 마을극장이기 때문에 생후 1개월 아이도 프리패스다 엄마만 오면, 되게 특별한 공간인데 일상의 연장 속에 들어와 있다는게 신기했다. 2007년 축제는 어떻게 했냐면 거리를 막고 했다. 분명의 일상의 공간인데 자동차들의 공간인줄 알았는데 우리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다는 이건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그때 알게 됐다 공간이라는게 이런거구나는 것을 공간에 대한 체감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왔었다. 그 다음 축제는 골목에서 했다. 거리축제에 반대에서 거기로 갔지만, 완전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 자동차들 때문에 애들 단속하는 공간, 오다가다 아이들 인사하고 동네아줌마들 눈인사하던 일상의 공간인데 축제의 공간으로 변신했었는데 저는 이런면에서 보면 김종석 교수님이 예전에, 3년전 파운스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사용해 줬었는데 일상의 공간이 완전 축제, 색다른 공간 이런 변신의 경험들이 마을에서 새로웠고 그것이 주는 감동은 관계에 대한 확인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 키우면서 만나던 관계하고 차수변경해서 막걸리가 돌아가는 순간, 분명 일상에 있었고 일상의 액터들이였는데 어느 순간 술판의 액터들이 되어 변신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었다. 이게 새로웠다. 마을에서 우리가 술 먹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기분, 회의하고 뒷풀이 하면서 느끼는 완전 새로운 느낌, 이 뒷풀이 감정이 다시 일상의 회의가 피드백이 된다. 축제는 일년에 한번 피드백, 극장은 일상적으로 피드백 되는거고, 작은 거는 하루에 여러번씩 피드백이 빠르게 순환되는. 예술적 체험이다. 주민들이 하는게 예술인가 아닌데 하는 건 정의 하지말자 했으니, 저도  이런 느낌이 기분 좋고 새롭고 재밌다. 거기는 거리도 있었고, 산, 카페. 커피숍이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해다는 거고 어린이집은 일반주택이었다

***최석규*** : 그러면 1부와 2부가 어떤 연계를 갖게 하는건지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부에서는 윤종연대표나 레이몽 같은 실제 예술가고 저 일단 기획파트의 사람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앞을 잘 풀어주냐에 따라서 2부가 이야기가 가는데 편하게 하지 않았나.

***김종석*** :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에 대한 것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번쯤 앞에 논의 할 때 거리가  길 그랬는데 지금 즈음은 거리가 하나의 메타포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주차장에서 하는 공연도 거리예술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게 우리가 통칭하는 거리예술이라고 하는거 하고 대안적인 장르로서 얘기하는 극장이 아닌, 얼터너티브 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길, 로만 생각하는 것, 물리적인 판단으로만 예술적인 메타포라는 것들이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사이트 스페이식이 충분히 들어올 수 이는데 마치 길 안막으면 아닌 것처럼 공간 확장시키는 이야기, 그 논의 들이 많이 됐으면. 거리예술에서 말하는 공간이라는게 거리 뿐만 아니라, 폐건물 안으로도 들어가고 주차장에 돌아가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다니고 아마 그 개념은 초기에 얘기 해줄 가능성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들 경우는 그렇게 생각안하겠지만 대부분은 거리예술이 거리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까  그 부분이 제가 관심의 부분이 실제 공연양식에서 대해서 거리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질까 진짜 초기에는 처음엔 거리만 막고 했고 그다음에 명동을 다 막았었고, 그다음에 섬, 그다음에 도심으로 이런 걸 보니깐 그 개념들이 10여년의 시간을 두고 변해오더라.

***김종석*** : 그게 왜 그게 변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윤종연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도 있고 어떤 관객들한테, 작품 만들 때나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분야가 아닌 사람들하고 이야기 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게 거리라는 말인 것 같다.

***임수택*** : 거리가 뭐냐. 관객이 누구나 찾아 갈 수 있는 것. 관객중심으로 가야한다. 다리 밑은 거리가 아니다. 관객은 두발 달렸으면 누구나 갈 수 있다.

***조동희*** :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공간, 근데 공공 공간 일수록 공공 공간 연극하기 그러니깐  그걸 거리라는 말로

***임수택*** : 요즘은 아트 퍼블리스틱 하기도 하는데

***김종석*** : 골목길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남의 집, 일상적인 공간 사실 거리라는 게 일상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우리창고였는데 누굴 불러서 게릴라식 콘서트 많이 하는데

***임수택*** :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일상공간의 예술 공간화

***김종석*** : 일상공간, 예술공간 헷갈려하고. 물리적 거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찍어주는게

***조동희*** : 아까 예를 들어 전남도청 사례를 보면 최석규감독님 작업은 스페이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 거기밖에 없는거다. 세계에 전남도청은 거기밖에 없잖아.

***최석규*** : 근데 그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공동으로 컨템포리 뮤지엄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는거다. 그 부분들이 결국 장소가 가진 의미성들의 부각으로 더 가는거지 장소의 건축과 그 역사성을 지금 이 작업에서는 제외 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성을 더 중요하는거지 장소에 피지컬에 대한 의미는 약해지는 것 같다.

***김종석*** : 공간에 스토리가 있느냐

***최석규*** : 그런 부분

***임수택*** : 전남도청은 그런거 하나 밖에 없다. 시민들이 저항하던 공간은 많이 있다. 바스티유..

***김종석*** : 아파트는 같은 경우 잘 쓰면 대도시의 빌딩에 영상으로 하는 작업들, 아까 얘기를 들었던게 무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의 의미가 있는, 대도시가 가진 드라마틱한건 찾긴 어렵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최석규*** : 무장소 개념이라는건 제가 쓴게 에드워드 왈프라는 장소와 장소성 상실이라는 책에서 현대 도시가 어떻게 무장소화 되고 있는냐. 그 부분에서 나의 핵심 질문은 소위 말한 대도시의 장소성을 잃어가는, 그 마을이락 했을 때 마을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획일화되는 공간을 어떻게 같이 바꿔줘야 하는가

***조동희*** : 제가 보기엔 조금 크게 말해서 변화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방향의 문제점이 획일화되는게 문제인 것 같다.

***최석규*** : 그건 어쩔 수 없다. 공간을 내가 바꿀 수 없다. 공간이 정해졌다면 나는 정해진 공간에 예술이라는 다른 툴로 바꾸는게 내 임무라고 한다라면 내가 서울시 개발업자도 아니고 공간을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웃음)



***김종석*** : 서울의 특징은 아파트이다. 장소성이라고, 특징이라고. 어디가서 이런 아파트 있는 나라 봤는가

***최석규*** : 지금 토탈미술관에서 전시하는게 뭐냐면 한국의 대만을 조사해서 얼마나 한국의 집이 획일화 되고 있는가를 박스로 전시하고 있다. 그러면 윤종연 대표, 공연자의 입장에서는 초기의 신체극을 실내극을 중심으로 하다가 밖으로 거리라는 개념과 나오게 되면서 갖게 된 질문들이 따로 있는가. 공연자의 입장에서

***윤종연*** : 지금 드는 생각인데 최석규 대표의 사이트 스페이식 작업을 많이 하면서 공간에서 이야기들 공간의 역사성을 거기서 그 이야기, 작업의 소재를 얻는데 그게 시작이 되는건데. 얼마 전에 조동희팀장이 실제 거리예술은 장소에서 힌트를 받는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를 달자는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든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하고 있어는데 사이트 스페이식과 거리극(내가 하고 있는 작업)은 다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유랑축제 말고 제가 극단에서 하는건 공간에 별로 구애 받지 않고 광장, 마당 이런 형태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장소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얘기를 듣다보니 근데 광장도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야? 거기서 힌트를 얻는게 아니야? 생각이 들더라. 왜냐면 제가 광장에서 이야기를 펼칠 때는 특히 관객들의 심리적인 동요들 이런게 재밌다. 개인적으로 연출을 하면서 그 동요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그 심리적 동요가 장소성을 기반으로 둔게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광장은 정치적인 공간인데 거기에는 내재된 관객의 흥분이 있다는 거다. 모인 사람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충분히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이야기를 갖고 있는게 아닌가.

***조동희*** : 사실 1부와 2부는 기계적으로 나눈건데, 공간에 만명이 모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 관계에서 생겨난다. 그럴 것 같다.

***김종석*** : 광장에서 십만 모였을 때 힘하고 그것과 관계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또 다를수가 있다. 저는 거리예술 공간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게 새롭다

***임수택*** : 특히 우리나라 공연자들이 공간에 자꾸 의지를 한다. 공간의 성격, 사이트스페이스를 생각하는게 많다. 나는 다 무시해라. 거리라는 공간에 아무 성격이 없는, 어디에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지, 어디가서나 공연을 할 수 있지 정해진 폼(예를 들어 벽돌이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 건 제한적이다. 그건 근본적인 우리 경향이 자꾸 도시의 구조물에 의지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 성격이 없는. 극장에서 블랙박스와는 다르다. 무차별적인 관객을 만나는 거고. 관객이 틀리다.

***윤종연*** : 형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김종석*** : 관객이 틀린 이유는 블랙박스일 때와 그 공간일 때가 있는데 틀려지는게 분명히 있는데

***임수택*** : 관객이 틀리다. 블랙박스는 선별된 관객과 그 관객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김종석*** : 과천에서 도로와 야드가 다르지 않는가

***임수택*** : 모든 공연이 모든 공간에 맞을 수 없다. 어떤 공연은 큰 광장에서, 좁은 골목에서 이런식으로 분류는 된다. 그 정도 분류

***최석규*** : 저는 그 점은 선생님들과는 생각이 반대에요. 장애인 활동을 20년간 한 스콜트랜드 안무가에게 인터뷰를 하나 땄는데 너 왜 장애인작업을 시작했냐 했는데 첫마디가 솔직히 처음시작은 기금 때문에 했다. 거기에 기금이 남아 돌았고. 근데 가장 많은 작업을 했고, 가장 깊이 있는 작업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까 돌아와서 윤종연씨 작업이 기금 땜에 한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일정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한다. 극장의 작업하고 예를 들면 거리의 작업이 무엇이 틀린것가 대한 부분들과 똑같은 문제, 왜 특정 공간작업을 하는냐를 보면 그거는 예술가의 자기 출발점이 뭐냐, 글을 쓰고 컨셉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박에 없고 대부분 그런 장소특정형 작업 하는 자들이 보면 미술쪽이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다. 몸에 연극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무용, 연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할 수 이는 작업들, 그거는 누가 예술적 자기 출발점이 뭐냐에 따라서 뭘 만들까의 구분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는 질문은 그럼, 거리의 관객은 극장의 관객과 뭐가 다르나. 윤종연대표를 예를 들면, 나는 윤종연대표의 작업이 거리와 맞다고 생각한다. 거리 관객은 극장 관객과 다른 에너지 에너지라는 부분, 종연씨 몸의 언어들이 거리에 맞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불특정관객, 준비된 관객과 스치는 관객 그런 개념에서 조금 틀릴 뿐인지, 뭐로 선택하느냐 일반적인공간에서 해야 하는냐 특정 공간이냐 그건 별개, 예술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유창복*** : 그럼 거리의 의미는 공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오다가다가 접근가능성이 높은게 거리인가요?

***최석규*** : 그건 아니죠.

***유창복*** : 무차별 관객과의 조우 가능성이 높은게 거리공연이라면 그런 의미인지

***최석규*** : 그런 부분도 있는거다. 근데 거리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그 공연을 보러간다

***유창복*** : 무차별 관객과 조우 가능성도 거리가 할 수 있는가.

***조동희*** :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창복*** : 예를 들어 플래시몹 경우는 그게 높죠. 하지만 예를 들면 하이서울은 축제다. 공간도 설정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인지된 자들이 극장에 티켓을 끊듯이 그 공간에 접속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과거에 극장이 전문예술가와 독특한 취향의 매니아들의 찾아가는 공간이라는 정의 속에서 상관된 열린 공간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의 사례이기에 일반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김종석*** : 그런 얘기 나올 때 옛날엔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갔는데 지금 거리예술 같은 경우는 극장이 관객을 찾아간다 작품을 가지고 일상으로, 극장이라는 한정적이지 않고 일상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조동희*** : 예전에도 극장이 위치하는 곳을 보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곳에 많이 세웠다. 그 얘기는 관객하고 다가가고자 하는게 있었던 거다. 그게 발전을 하고 예술 관객이 뭉치고 하다 보니 그러다보니 벽이 나타난거고 일련의 아티스트들이 나온거다. 나와서 기존의 관습적인 공간에 뛰쳐나와서 다른 공연을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축제나 공연형식이 하나의 포맷화 돼서 굳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100명의 관객이 있는데 처음엔 이중에 90%는 그냥 스쳐가던 관객이었는데 10%만 알고 온 사람이었는데 이게 포맷화 되면서 약속하고 오는 사

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공연자, 공간, 표현 방식의 변화를 해야 한다.

***유창복*** : 근데 거꾸로 제 경험적인 거는 이미 역사적 스토리가 있었는데 새롭게 재현해본다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사이트로 가서 재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에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하는데 근데 성미산에서 역사적 기억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느낌을 되살리고 그때 이랬었어 정보를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러한 의미도 있고 동일한 축제를 반복 하면서 이야기가 쌓인다. 그 때 사는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르고 이야기가 그렇게 포맷화 되는게 부정적인 건가. 이야기가 쌓여가는 공간이 일상의 공간이고 이야기의 새로운 방식 재현이 예술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보면 꼭 그렇게만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아닐까.

***김종석*** :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는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안산에 안산문화예술전당이 경기도에서 유료 관객률이 젤 높다고 하는데, 안산거리극 축제 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오는 관객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티켓을 보고 오는 사람과 다른 관객이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날 되면 딴데 안가고 축제로 간다. 천안함으로 안했을 때 게시판에 왜 안하느냐고 난리가 났었다. 그걸 기다리는 관객이 극장에 가지 않는 관객이 나오는데 극장에 오지 않는 다른 것을 거리예술이 쥐고 있다. 옛날엔 동춘 서커스공연을 봤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몸꼴 공연을 보고,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공간에 있는 수준이 달라진다. 뮤지컬 보면서 뮤지컬 보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게 아니고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진다.

***조동희*** : 참여하는 분들께서 몇 가지 정도의 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최석규*** : 저는 정했다. 공연양식에 변화에 따른 공간 인식의 변화, 공간의 형태도 공연양식을 변하시키고 있고, 그거와 맞물려서 거리예술의 메타포라는 것들이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장소의 특징들이 다 일률해가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건 관객하고 마찬가진데 그런 공간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어떤 관객이냐면 인터넷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연의 형태는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 사실 질문들이다.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임수택*** : 내 생각에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의미가 있을려면 하나는 정리를 다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풀어놓고 말 것이냐. 첫 번째 거리가 뭐냐, 이것을 모아서 충돌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관객에 대한 입장도 모아야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풀어놓고 너무 자유롭게 말고

***김종석*** : 저의 역할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 드린데로 관객 참여의 한계, 가능성 하나와 참여의 방식에 대한 얘기, 공동체 얘기 또 말씀하신 거기서 일상

***임수택*** : 공동체 연극이 사실 우리가 화두로 삼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 공동체 예술이라는게 나도 경험이 많지 않으니깐, 거리극 축제만 돌아다니다 보니깐 공동체 연극을 한번도 못 본 것 같다. 기억이 안난다. 삶의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건 많은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연을 만드는 게 있는가, 아 엑스트라로 조금 참여하는건 봤다

***윤종연*** : 요즘엔 커뮤니티 댄스 마니 한다.

***임수택*** : 나는 거리극 축제만 돌아다니깐 그렇다는거다.

***김종석*** : 그 사람들은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제도권 축제에 안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임수택*** : 거리극 축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조동희*** : 근데 약간 변형된 형식인 것 같다. 사실 공동체 예술이라 하면 아티스트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동안 꽤 상당기간동안 작업을 하는건데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건데 거리극에서 나온 공동체는 인간 사파리 같은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프로젝트성인거다. 주민들과 일정 정도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축제에서 나타나는

***김종석*** : 이게 만약에 공동체 예술이라는 논점을 축제에 참여하는걸로 한정시켜야하는 건지

***임수택*** : 그건 아니다. 거리 예술이라는 장르를 놓고 이야기 할 때, 대한민국만의 거리예술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리예술계를 우리는 놓지 말자는 거다. 우리만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그래야 브뤼노랑도 이야기가 되고

***김종석*** :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할 때도 영국도 보면 그런 축제가 오히려 축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지역의 공동체가 백개가 넘었다. 오히려 한국은 요즘 나온거다. 지금은 뭔가 페스티벌 중심으로 논의 할 것인지,

***임수택*** : 나는 오늘날 현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나는 공동체가 소모적,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지 여기서 같이 이야기 할 건 아닌지 않나싶다.

***김종석*** : 이건 정리하고 가야한다. 묶을지 아닐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박찬국,유창복)

***조동희*** : 공동체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건 사실인데

***박찬국*** : 나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다. 말씀하시는게 굉장히 장르편향적인 느낌이 강해서.  모든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움직이고 있지 고정된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거에 묶여있는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도 공동체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게 공동체냐 아니냐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시도도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까 장소특정형 공연 무분주한 공간에서 산업화된 어떤 시도를 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끌어낸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여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공동체의 하나의 가능성이 생겨나잖아요 예술이 어떤 그런 활동들이, 머를 예술로 규정하고 제가 예술 전체를 규정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예술 행위라는 거는 어떤 지향 자체를 여러 가지로 봐줘야 하는데 그 지점을 너무 구획 짓고, 그거 안에서 해석하려고만 하거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려고 하면 논의가 짧아져버리니깐, 왜냐하면 미술은 훨씬 그런면에 있어서는 다르게 얘기 하는데 행위 자체의 공간, 내지는 행위의 장르, 양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상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없는거다

***임수택*** : 거리로 나온 예술이니깐, 거리예술 일을 했고, 거리예술의 우리나라의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말씀 드린거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보편적인 것을 머리에 그리고 이야기 하는게 좋지 않겠냐

***박찬국*** : 그 말씀은 좋고, 거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아마도 거리극으로 활동 해오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확장이 될 것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니 거리예술이 그럴꺼라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완전히 폐쇄된 공간, 요즘 학교 같은 데가 그런 곳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기능적으로 닫혀진,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게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외부로 확장되서 비디오로 보여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리에 무차별하게 보여진다. 사적공간이 공적공간에 노출된다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거리의 사유, 공유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거리라고 하는

형식을 현재 검토대상으로 다 놓고 얘기를 나누면 저는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종석*** : 그래서 유창복, 박찬국 같이 다른 분야의 분들도 함께 인 듯하다.
***임수택*** :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버렸다 이게 논쟁이 되는거다(웃음)

***김종석*** :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고, 유럽의 영향은 받은건 분명하다. 미국도 커뮤니티 아트로 영향을 임수택님은 거리극 축제를 중심으로 보시니깐

***임수택*** : 나는 독일에서는 못 들어봤다.(웃음) 독일에 한군데서 농민전쟁 당시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재로 한 괴테의 작품이 있다. 그 장군이 활동했던 섬에서 그 작품을 그 마을 주민들이 공연을 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 지금은 주인공은 배우고 마을주민들은 엑스트라다.

***김종석*** : 일상의 교육과 복지와 예술이 결합되면서 활성화되고 한국이 늦은게 있다.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고 수요가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접점도 필요할 것 같고

***임수택*** : 공동체 관한한 내가 졌다 (웃음)

***김종석*** : 저 정도 내에서 2부 섹션은 논의를 정리하고 하지만 저는 제안하고 싶은게 구체적으로 짧게

***조동희*** : 근데 흥미로운게 유럽을 보면 대륙은 공동체 없다. 발달 한 곳은. 영국은 다른 것 같은데 왜그럴까

***김종석*** : 그걸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거리예술 접목해서 보지만 마시고

***조동희*** : 그렇지는 않다 굉장히 서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건데

***김종석*** : 재밌는건 영국에서 이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고 이 운동을 한건데 이게 좌파쪽에서 문화운동을 하면서 나온, 예술가 공동체 결합이 나온다

***조동희*** : 프랑스 애들은 한 지역 가서 10년 20년 작업하는 예술가가 있는데 일반 보편적인 생각은 몇천 몇만 수준의 작은 수준인데 한 단체가 작업을 하면 오히려

***김종석*** : 대표적인게 태양극단을 이야기한다. 지금 오해가 있는게 공동체라는게 예술가가 한 지역에 가서 10년 20년 그렇게 모티브를 주고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간다는거다. 여기서 사는 것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성미산은 예술가는 없다. 특정 예술가가 가서 이 사람들과 축제를 기획할 때 축제 전문가가 가서 기획을 해야 우리가 얘기 할 때 공동체 연극이라고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게 많다.

***최석규*** :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뛰다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내가 어떤 시기에 누구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개념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씨어터, 커뮤니티 베이스 씨어터, 어플라이 씨어터까지 용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분인 것 같다. 왜냐면 공동체 작업을 하려는 데 안모인다. 축제 해 봤자나요.  젤 어려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 인가. 오히려 공동체 있는데 가서 공동체랑 같이 하는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그게 훨씬 더 공동체와 같이 하는 작업의미들이, 공동체와 뭘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저는 개념자체가 중요한가 라는 부분은 버린 측면이 많고 한번은 춘천역 내리면 집창촌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작업해서 공연하려는데 춘천시가 발칵 뒤집어졌다. 안된다고 하더라. 거기도 공동체 집단생활인데 안된다고 하더라. 여하튼 저는 그 공동체 사람들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주제와 컨텍스들을 공유하냐 문제이지 공동체가 임한 범주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은 별로 중

요한게 아닌 것 같다.

***임수택*** : 7월26일에 승부를 보자고(웃음)

***조동희*** : 일정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
(3명이 불참)

***김종석*** : 필요하면 간단하게 메일로 서로, 그래야 붙어야 좋은 것 같다. 오늘 보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논점만 정확히 주고

***최석규*** : 그러면 두 사회자가 오늘 베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모더레이터가 해주세요.

***조동희*** : 저희가 발제는 안하지만 간단한 텍스트는 좋을 것 같다. 기술된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 주려고 한다. 한분 마다 A4 1장 이상 ~ 2장이하, 10포인트, 서술형, 2페이지 중에 반은 본인의 작업, 소개 위주로. 날짜를 15일 일요일까지. 간단 소개글도 부탁. 2차 모임은 없는거고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메일로 답신을 주면 그걸 사회자가 정리해서 섹션별로 다시 공유하는 방식으로.



***최석규*** : 당일날 조끼리 모이는게 좋지 않을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조동희*** : 26일 11시에 대학로에서 뵙는걸로 하고 정확한 장소는 다시 한번 안내

***류창복*** : 나는 감을 잘 못 잡겠는게 지금 혼돈이 생겨서 거리에 대한 느낌하고

***김종석*** : 저는 생각하는게 각자 세분이 축제를 관객에 대한 느낌과, 성미산에서 하던게 나오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했던게 나오고

***박찬국*** :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 공공미술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공공미술 얘기가 나오면 제가 재밌게 읽은게 비관습적인, 이런 말이 재밌는 것 같다, 그것들이 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이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생긴 관객들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안산에서 한번 그런적이 있다 안산에 솥단지 하나하고 박스에 요리할 수 있는 작은 도구들을 다 놓고 가게에서 외국에서 파는 야채를 다 사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외국들을 만나면 이 야채를 어떻게 먹냐 설명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서 만드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만드니깐 사람들이 중국 연변에서 오시는 분이 이제 막온 모녀가 광장에서 시연을 하게 됐는데 시연을 하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놀라운건 중국에서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참견을 하고 그 분들이 만들었는데 토마토로 국을 끓이고, 아무튼 전혀 안먹던걸로 음식을 하더니 어떤 아저씨가 화가 나서 내가 하겠다 자기가 차지를 했다.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들은 당신들 어디서 왔어 텃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들이 모이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몰려와서 찍고 있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만든게 양념이 똑같고 그러니 맛이 다르지 않는거다. 다들 한번씩 먹어보는거다. 당신도 먹어봐 이런식으로 다 먹어보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 뿐 만 아니라 거기서 공동의 관심사가 어느 순간에 하나둘씩 공연이 시작된게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흩어졌다. 어떤 아저씨가 맥주 한병 사와서 저랑 나눠먹고 끝났다. 약간 멀리서 친구하나가 비디오 조그마한 걸로 찍은 것 밖에 없다. 지원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거리 안에서 어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흥미로운게 연속되거나 영향을 서로 미치고 그런거에 관심이 있다. 그게 미술에서는 예술가가 하니깐 작업이라 볼 수 있는거고 거리공연을 해야 하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형식을 띄지도 않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 아트라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다국적이라는 상황을 제가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커뮤니티라 볼 수 이는데 구별되는 커뮤니티인데 비디오만 하나 찍어서 전시할 때 보여줘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 하는 거리하고 극장이라는 개념하고 관객이나 배우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냐하면 장르를 넘어서 옛날에는 미술에는 서사가 없는데 서사는 시간이 도입되거나 커뮤티니라는 개념들이 확산되거나 그런게 있어가지고



***조동희*** : 현대 거리극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형식중의 하나가 해프닝이다. 지금 말씀하신게 커뮤니티 해프닝같다.

***김종석*** : 환경연극 같은데

***박찬국*** : 어떻게 보자면 그런 목표가 아무것도 없는거다. 어떻게 보자면, 목표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

***김종석*** : 원곡동으로 간 것 자체가 셋팅한거다 환경적 요인에 우연성을 줘서, 크게 보며 그것이
***박찬국*** :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연극적인 형식이었다고 보는데

***김종석*** : 그런류의 공연이 거리극에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3.
# 토론의 글
# ; 원고

# 공간을 통한 공공미술로의 거리로 나선 예술에 관하여

- 공공미술프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유다희(공공미술프리즘 대표)**

**1. 젊은 예술가들_ 거리로 나선 예술을 시작하게 된 배경**

2000년대 초는 미술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이야기하던 '예술'과, 졸업 뒤 IMF 이후 시대 속 '예술'의 차이에 답답해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기에 우연히 지하철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공공미술을 만났다. 미술의 새로운 작업 환경인 '공공 공간'과 사회 속 예술은 그 여러 고민들을 생각해 보며 작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2004년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이라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고양시 행신동의 한 건물에 입주하였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예술가 창작공간이 여유롭지 못했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없던 시기였다. 이 경기도 한 동네의 입주를 계기로 현재의 공공미술프리즘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되었다.

**2. 사례 1 / 공간을 통해 말걸기로의 예술**

2-1 1.5*2m 예술노점 작업장_ 도시에 끼어들다
2-2 도시인의 표정 리서치_ 오늘은 가면을 내려 놓는다
2-3 도시개발과 사라지는 공간성_ 협궤변 리터러시
2-4 도시개발과 사라지는 공간성_ 하나의 길 네 개의 감성, 피맛골
2-5 사건과 지역_기름이 그린 그림, 대추리 착륙불가

**3. 사례 2 / 일상과 결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3-1 부르릉! 작가와 함께 출퇴근 버스를
3-2 공공디자인&커뮤니티디자인_ 용하운동장과 사할린 이주주민
3-3 우리가 만드는 우리마을_동네 펜스 주민참여 벽화 만들기

**4. 사례 3 / 동네, 새로운 공간성으로의 예술**

4-1 '일상이 예술이 되는 동네' 행신동 거점 활동_ 카페, 작업장, 놀이터
4-2 주민 리서치_ 팔순회고전
4-3 시민 물건 역사전_ 나의 아름다운 물건전
4-4 도시전설 유랑극단 프로젝트_전설의 고양

**5. 프리즘 작업을 통하여 읽는 '현재의 거리로 나선 예술'에 대한 제언**

_예술 작업과 거리와의 관계성
_예술가 거점(터)을 통해 읽는 지역
_새로운 형태의 활동 전개_ 예술이라는 이름표

# 거리의 의미

## - 축제의 거리? 혹은 공공의 영역, 일상의 거리?

**윤종연(몸꼴 대표,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거리예술의 '거리'는 공간의 개념 이전에 정신에 관한 광의적 의미로 해석해야한다.' 라는 말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듣는다. 거리가 단순히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거리는 시민들의 일상에 간섭하고 도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기 위해 나선 공간이고 연극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선택한 장소이다. 이 처음의 목적에서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리는 다수의 군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연극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대중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간혹 거리는 민주적 공간이라는 개념하에 거리를 다수의 시민이 점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그 다수와 예술을 공유하는 것이 거리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오류를 본다. 거리예술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넉넉하게 분배한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넉넉한 분배가 아니라 일상의 보행자들에게도 연극적 만남의 충격을 주고 시민들이 도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예술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리예술은 공공의 영역에 또는 일상의 단순함에 끼어드는 것이다. 그것이 대접받지 못하는 거리에 나선 이유이고 목적이다. 거리는 축제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 혹은 공공의 영역에 공공적이지 않은 하지만 공공적인 척 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이다. 단순히 보다 많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기 위해 축제의 '공간'의로서만 '장소'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리의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리는 축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거리예술이 축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공간에 대해서 혹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위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고심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거리가 단순히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리예술의 정신을 공유하고 다양한 소통의 경로를 모색하는 많은 접근 방법과 그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마당 혹은 광장의 무의식적인 힘은 심리적인 동요를 쉽게 얻어내기에 매력적인 요소이다. 이 공간은 소통의 기억과 혁명의 무대가 되었던 지나간 시간이 아로새겨져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점유한 길은 시민들에게 일탈과 변화의 꿈을 종용한다. 이러한 장소가 지니는 문화적인 맥락의 기억은 심리적인 연쇄반응을 촉발시키고 때론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치닫게 한다. 과천한마당축제에 초청된 제네릭 바뵈의 '야영'이라든지 춘천마임축제의 개막난장 프로그램인 '아!水라장'을 보면 관객들안에 내제된 끓는 피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 단순히 장소성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의 군중심리라고만 한다면 도시에서 건축의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과 삶이 존재할 공간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모양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디자인에 문외한이라 해도 디자인의 중심에 사람 혹은 그와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은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동선을 고려하고 마찬가지로 거리에 놓여진 예술은 자연과 건축이 배려한 동선을 따라 배치된다. 그것이 이미 장소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장소성의 맥락을 쫓아가다보면 지역의 역사와 삶이 고려되고 또 그러하다보면 지역성이 두드러지게 다가오면서 나와는 다른 경험과 기억을 몸에 지닌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올해 2년째가 되는 '유랑축제'는 그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진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다 가깝게 만나고 싶다는 것, 조금 더 일상의 깊숙한 지점에 발을 담그고 싶다는 자발적인 충동이 지역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주도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이전에 자연스럽게 내면으로부터 올라온 욕구이기도 하다. 거리의 정신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축제가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고 공연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계기도 동시에 심어준 것이라 여긴다.

#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 - 축제의 공간으로 장소(Place), 공연의 장소로 공간(Space)과 대화

**최석규(아시아나우 대표 / 프로듀서, 드라마터그)**

장소(Place)와 공간(Space)을 하나의 의미로 정의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장소를 위치의 개념, 자연적, 문화적 요소, 역사적 의미의 통합된 요소를 가진,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의미의 요소를 가진 곳으로 보고, 공간은 형태가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도 없고 또 직접 묘사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실체가 아닌 추상, 인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축제공간으로 장소성과 장소 그리고 예술작품의 창작을 위한 공간성과 공간은 지난 15년간 춘천마임축제(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에서 부예술감독으로, 현재 아시아나우(AsiaNow)에서 일상의 도시 공간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듀서와 드라마트루기(Dramaturg)이 입장에서 늘 매력적이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로 그러나 도전 해 볼만한 과제였던 것 같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얻었던 것과 현재의 고민점과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먼저 그것은 공연양식과 공간 혹은 장소의 관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예술가들의 공연 양식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한 장소성과 공간성이 공연 양식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가들은 거리를 시작으로 특정 공간과 일상의 공간에서 관객들과 어떻게 만나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 1. 축제의 공연 공간으로서 거리에서 그 장소성의 확대

우리가 거리 예술이라고 일컫는 것은 단순히 거리극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 인지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거리극, 거리예술, 퍼블릭 아트(Public Arts)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극장의 공간이 아닌 일상의 거리, 공공, 혹은 특정 공간에서 극예술(거리극, 마임, 서커스 등), 시각예술, 사운드 아트(Sound Arts)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춘천마임축제의 경우, 클라운, 광대극과 판토마임의 공연양식이 주로 이루었던 초기 축제의 공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거리 혹은 야외무대, 야외 공간의 개념이 지배적이였다. 그 이후로 서커스 등 대형 공연 형식이 소개되면서 대형건물 벽, 주요 차량의 거리, 춘천 명동이라는 장소를 활용하게 되었고, 거리의 개념이 소극적 거리에서, 다양한 공간의 장소로 확장되었다. 또한 축제의 주요 장소를 섬이라는 곳으로 옮기면서 사이트 스페시픽(Site-specific Theatre), 사이트 리스폰시브(Site-Resonsive performance) 공연형태로의 변화되며, 따라서 섬이라는 전체 공간을 하나의 공연 공간으로 섬의 특정 공간들 즉 수영장, 나무숲, 잔디밭, 물가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이동형 공연, 야외무대 공연, 특정 공간 공연양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즉 이것은 공연 양식의 변화에 따라 공간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 혹은 공간의 변화에 따라 예술가들에서 새로운 공연 양식을 요구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축제 감독의 입장에서 예술가와 동시대의 관객, 그리고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의 공간성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공연의 양식과 장소 혹은 공간성의 관계를 끊임없이 질문 하게 되었던 것인 것 같다.

20년의 춘천의 생활공간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갖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들은 먼저

**2. 대도시 공간의 축제성은?**

춘천은 인구 20만의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와 호수로 둘러 쌓여 있는 자연 공간이 축제를 하기에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서울, 도쿄,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의 축제 공간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메트로 폴리탄 시티가 점점 더 장소의 역사성, 공간성, 사회성을 잊어 버리고 일률적이며, 획일적인 아파트 형태 등의 공간으로 변화가 있는 대도시의 공간성에서 어떤 공연양식으로 축제의 공간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즉 이것은 대도시 공간 자체가 무대가 될 수 있는 공연의 형식의 개발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점이다.

**3. 장소의 고유성을 잃어가는 대도시 공간에서 테크날로지로 추상공간과 인지공간 만들기는?**

이것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이라는 테크놀러지에 몰두해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공연양식은 무엇인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본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디지털 테크놀러지 새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기계와의 인터액티브(Interactive)를 즐기는 이 시대의 관객들을 예술의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공연 양식은 무엇인가?이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Augmented Relatity)의 테클날러지가 장소의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 장소에 새로운 사람과 대화 할 수 있는 추상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다.

# 애매한 공간들, 모호한 예술로 만나기

**박찬국(작가, 논아트 밭아트(nonArt butArt) 디렉터)**

전시장(화이트 큐브)보다는 예술적 위계가 적은 도시와 일상적 공간에서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 기억이나 쓰임이 중첩된 유휴공간에 관심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곳에서 작업해왔고 현재 오랫동안 방치된 문화기관의 뒷 창고를 수리해서 더부살이를 준비 중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앞쪽과 달리 이면에 있는 B-space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즉자적, 그때그때, 이것저것, 마음에 들 때까지, 뭔가를 '함께'하는 공간이다.

2011년 광릉내 프로젝트 중 400평의 논농사 '철없는 논'을 예로 들어 공간, 관객, 작업, 공공성에 관한 생각의 일단을 말하고 싶다.
하천부지 논이 있는 땅은 공간적으로 지역의 중심에 있고 시유지이지만 지역의 유력자 집안의 사유지처럼 운영되던 곳이다. 동네에 17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인데 변화된 동네 상황을 반영하여 작가들이 논을 프로젝트에 쓰게 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있는 문제적 공간이 되었다. 논을 쓰던 사람들의 감정이 상한 것이다. 이 논에 두 개의 둠벙을 파고 오리집을 세웠다.

오리집은 프랑스 근대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의 초기 대표작 '빌라 사보아'의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하였는데 철골, 입방체 덩어리, 계단과 루프, 큰 창틀, 옥상정원이 있다. 재료는 철골만 제외하고 모두 주워온 것으로 만들었는데 특별한 것은 여기서 오리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자체를 퍼포먼스화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리한테 공연의 의식은 없다. 오리는 약 1.5미터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서 아마도 논에 있는 잡초보다 맛있는 사료를 먹고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다. 문제는 집 안에 물이 없다. 먹을 물도 주지 않는다. 물을 먹기 위해서는 연못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는 곳은 루프, 즉 미끄럼틀로 되어 있다. 당연히 오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들락거리게 되고 이것은 동네에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이것을 동물학대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적당한 운동이라고 한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 특히 여성들이 무척 좋아한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사람들에게는 동네에 오는 거의 유일한 빌미가 된다.

옥상 정원은 아이들과 논에 있는 잡초를 뽑아 올려 만들었다. 아이들은 오리 20마리에 대해 하나하나 잘 알고 있고 팬덤도 형성되었다. 논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엉터리이지만 주민이나 방문자들에게 논과 농사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
꼬르뷔지에는 주거에 대해 근대적 관점을 제공하였고 논농사는 오랜 디자인의 산물이지만 여기서는 놀이터에 가깝다. 빠르게 변해가는 지역의 재의미화 된 매개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재주는 오리가 부리고 잘난 체는 작가들이 한다. 아니 오리는 그냥 집의 조건에 적응하며 살아갈 뿐이고 모여들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철 없는 인간들이다.

# 우린 마을에서 논다, 예술로 논다

**유창복(성미산마을극장 대표)**

**거리예술의 의미**

공연장으로 고안된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하는 예술? 일상생활이 어우러지던 공간을 예술로 채워내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주는 매력이 있다. 공연장으로 고안된 공간이 아님에도, 공연장으로 변신하는 일탈이 주는 신선함 아닐까? 자동차와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하여 넋을 빼고 바삐 달려가는 공간이 그럴듯한 공연장이 되고, 지나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차들로 꽉차던 길이 사람들도 북적일 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 신선함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기분… 그래서 일상과는 다른, 약간은 들뜬 기분과 몸가짐으로 자신을 드러낼 마음이 드는 것 아닐까. 즉, 일상의 연장이자 일상의 전복이 가져다주는 익숙함과 새로움이랄까.

거리가 주는 이런 매력적인 경험은 나는 마을에서 자주 한다. 2007년에는 길을 막고 거리축제를 벌였고, 이듬해 2008년에는 동네 골목에 판을 깔아 골목축제를 했다. 요사이는 길을 통째로 막지는 못해도, 차도 하나를 확보해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퍼레이드를 한다. 거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거리는 일부이고, 그보다는 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 아이들이 자라는 어린이집 터전의 마루와 마당에서는 어른들의 술자리와 아이들이 좋아라 하는 파티가 별 준비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진다.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마을카페 '작은나무'에서는 매주 음악회가 열리고 동네 애들과 가족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시를 낭송한다. 동네 한복판에 마련된 마을극장에서는 매일 무언가의 마을행사가 벌어지고 다양한 공연이 수시로 올라간다. 마을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일상생활의 공간이며, 일상생활의 연장에서 벌어지는 예술 활동이다. 따라서 이곳들은 일상의 '연장'이면서 순간, 일상의 '일탈' 공간이 되며, 그래서 '익숙함과 새로움'이라는 상반된 느낌이 교차한다.

**마을, 일상 공간에서의 소통**

마을이란 뭘까?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하소연하고, 필요를 함께 궁리하며, 그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다. 하소연하고, 궁리하고, 도모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 선채로 수다를 떨고, 애들 학교에 보내놓고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하며 동네소문 일일이 모조리 취합하고, 퇴근길에 출출하여 불러낸 이웃과 소주 한 잔 함께 걸치는 등등의 그런 사소하고 친밀한 일상의 관계를 토대로 한다.

그러다가도 어린이집 운영회의에 참석하면 보육료 차등제다, 교사육아휴직제다 중요한 정책을 토론하고 때론 격론을 벌이는 공론장의 토론자들로 다시 만난다. 성미산이 헐릴 위기에 처하면 모두들 산에 올라 산을 지킨다. 10여년 전 성미산 1차위기 때는 2년 동안 산을 지켰다. 그 당시 매일 열리던 마을회의는 4, 50명의 주민들이 벌이는 공론장이었다. 단체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기주장의 공간이다. 누구든 자기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또 주장하는 그를 응시하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이 엄연이 존재하는 곳, 바로 공론장이다. 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초대하고 응대하고 환대하며 생활을 엮어가는 공공적 공간은, 친밀한 관계의 영역과 공론장의 영역 두 가지가 있다.

**술? 예술! 말을 하면 할수록 다투는 시대**

평소 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 뻘짓을 하면 '쟤 왜 저래? 어제 마누라하고 한 판 했나?' 하고 만다. 그러다가 며칠 후 우연히 다가가 "별 일 없어?" 하고 툭 던지고 만다. 하지만 평소 관계가 불편했던 이라면 상황이 정반대가 된다. 뻘짓은 커녕, 미운 놈이 바른 소리할 때 젤로 재수없지 않던가? 그렇다. 수용적 관계가 없으면 진실이 진실로 전달되니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수용적 관계, '개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관계가 바로 수용적 관계다. 그렇다면 이 수용적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소통한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다투는 시대다. 놀아야 한다. 말보다는 함께 놀 때 친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 진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수용적 관계가 시작된다.

뭐하고 놀까? 술 먹고 노는 게 최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폼나고 좋은 것은 예술로 노는 것이다. 예술이 별건가? 맨 정신엔 뻘쭘해도 술 한잔 들어가면 속 마음이 술술술 풀려나오지 않던가? 거기다 빈병에 숟가락 하나 꼽아놓고 노래 한자락 뽑으면 더욱 금상첨화 아니던가? '술'과 '예술' 한끝 차이던가? 우린 마을에서 논다. 술 먹고 놀고, 예술하며 논다. 그렇게 관계를 쌓아간다.

마을에서는 일상의 공간과 예술의 공간이 한끝 차이다. 두 공간 용도가 수시로 교대된다. 일상의 공간이 어느새 예술의 공간이 되는가 싶더니, 예술의 공간이 다시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그 공간은 어린이집 마루에서 마당으로, 성미산 꼭대기로 이어지고, 마을카페의 쪼그만 홀에서 마을극장으로 확장되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에서 좁다란 골목으로 연결된다. 한편 예술의 공간은 친밀한 관계의 분위기이면서도 공론장의 특성을 가진 공간이다.

**관람자? 아니, 소통의 주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긴 회의를 끝내고 자연스레 이어진 뒷풀이, 막걸리 몇 순배 돌아가자 무겁고 열띠었던 토론 의제는 다 어디로 증발하고 소소한 생활의 이야기가 꽃을 피운다. 그러다 누군가의 구성진 노래가 흘러나오면 다들 지그시 눈감고 제각기 추억에 빠져든다. 마을카페에서 오카리나를 열심히 함께 연주하는 부녀(父女)를 보며, 언제가 냉랭한 부녀지간을 걱정하던 그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거리축제의 길거리배우로 나선 아무개 엄마를 보며, 평소 까칠했던 그 엄마의 모습과 도저히 연결되지 않아 당황한다. 마을극장에서 마을극단 '무말랭이'의 공연을 보고, 소시적 매우의 꿈을 품었던 추억이 올라오고, 잊고 지내온 젊은 시절의 꿈과 그 꿈을 눌러온 생활의 무게를 새삼 실감한다. 결국 "나도 하고 싶다"는 열정에 나도 모르게 "브라보~"를 외친다.

이웃들의 공연을 지켜보며 이웃들의 일상의 스토리를 떠올리고, 내 일상의 스토리에 포갠다. 우리는 예술하고 놀면서 서로의 스토리를 '관계'로 엮어낸다. 이렇게 관계가 엮이는 그곳이 바로 '거리' 아닌가? 그 거리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표정과 느낌과 감정이 서로 엉기듯 소통되는 비언어적 신체언어가 훨씬 풍부해서 참 좋다.

"우린 마을에서 논다. 예술하며 논다."

# 거리예술의 정당성과 위기: 관객과의 관계

**임수택(과천축제 예술감독, 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거리예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수많은 관객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축제는 관객으로 넘쳐난다. 이들의 눈길은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 그들의 이 욕구는 정당하다. 그것은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기에 거리예술의 정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수요가 많다고 다 정당한가? 수요가 많기로는 대중문화를 따를 수 없다. 이들은 종종 자기들의 작업을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예술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수의 대중들은 대중매체문화의 홍수에 휩쓸려 지낸다. 이들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우리는 미처 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대성공을 거두었다.

대중문화의 출발은 판매다. 팔리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팔리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돈의 논리가 활개를 친다. 이들의 성공은 야수 같은 판매전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대중의 말초적인 구미에 맞추기 때문이다. 한 때 충무로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몇 가지 줄거리의 방향을 놓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는 예술가의 정신이니 혼이니 하는 것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오로지 대중을 유혹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선 종종 현실을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폭력성, 허구성, 선정성은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 맛에 중독되어 때로는 현실을 잊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한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상주의(Sentimentalism)도 자주 이용되는 수법으로, 이 마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종종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괜한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예술은 대중의 구미에 아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가는 우리의 삶에서 짙은 그늘에 가린 어두운 구석을 들춰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위대한 예술가들은 인간과 세계에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해 왔다. 예술가들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계가 아직까지는 병들지 않았는지 모른다. 예술은 이러한 사회 공익적인 역할을 내세워 자기주장을 하고, 정부는 예술을 지원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대중을 상대로 예술을 시도하고 성공을 거두었다. 나아가 거리예술은 아주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실험을 통해 인류의 예술문화의 외연을 확대시켰다. 이것은 거리예술의 무시할 수 없는 업적이다. 한편, 거리예술의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실내극 못지않은 섬세한 표현도 가능해졌다. 거리예술이 성공하면서 몇몇 큰 축제의 공식참가작들은 시내를 벗어나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을 빌리곤 한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수의 예술애호가들은 기꺼이 그곳도 점령하지만 대다수의 소박한 대중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30분을 걷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공연 중 몇몇은 좀처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다시금 예술을 즐기기 위해 심미적인 감수성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예술가들이 예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와 대중을 떠난 것 아닌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한 초심을 생각하면, 예술가들은 예술을 위해서 거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거리의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예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금 대중이 예술에서 소외되는 불행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부분적으로 거리예술의 위기다. 우리는 거리로 나온 대중들의 기대에 찬 눈동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

# 4.
# 토론의 시간
# ; 라운드 테이블

## 토론1. 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 토론자 : 레이몽 블라(퍼포머, 조형예술가), 유다희(공공미술프리즘 대표),
윤종연(몸꼴 대표,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최석규(AsiaNow 프로듀서)

- 사회자: 조동희(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

***조동희*** :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작년부터 유사한 방식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제 위주의, 전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리통도 그렇고, 세션 중간 쇼케이스도 그렇고 조금 더 부드러운 자리에서 컨퍼런스가 이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토론 중 관련 영상 사진이 계속 화면에 제시될 텐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어-한국어 통역을 맡으실 최미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거리예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과연 거리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외부 기획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거리라는 공간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예술 공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다희*** :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공미술이라는 베이스하에 거리예술을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대학 이후 10-15년간의 시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미대 시절에 교수님께서 1가지 과제를 내어 주시면 4가지 이상의 작업을 했습니다. 잠과의 싸움이었고, 제 노동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졸업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한 점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학교라는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살아 왔던 것이지요. 큐레이터와의 갈등 속에서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공공 미술이란 무엇인가, 사회성에 대한 고민 없이 10년 동안 공공미술을 해 왔습니다. 이 시대 미술의 사회성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도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저에게 요즘 반문합니다. 내가 이 작업들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하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 화면에 저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작업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예술가들의 그것과 같지 않은지. 사람들의 인상, 대추리, 불오른 버스 프로젝트 등 중소기업이 지원을 계속 해온 신진 예술가와 함께 해오는 버스 프로젝트들. 동네 일상성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업실, 카페, 일상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거리극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공간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 상황에 대한 작업도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술가들과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종연*** : 저는 몸꼴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윤종연입니다. 저희는 창단한 지 10년째인데, 처음에는 극장에서 할 수 없는 작품들을 하고 싶다는 욕구 아래 공간, 장소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공간, 일상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는 작품들이 발전해왔습니다. 지금은 7-8개 단체가 연합하는 유랑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랑축제는 장소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커뮤니티 안에서 실제 그 지역의 고민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축제입니다. 또한, 춘천마임축제 감독으로 고민하고 있는 새내기 감독입니다. 저는 거리예술이 한 가지의 장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예술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도 거리예술 작업을 하고 계신데, 더 큰 범위에서 품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축제 중심으로 거리 예술을 너무 조망하는 것이 아닌가. 유랑 축제의 경우에도 축제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안에 깊게 발을 담가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최석규*** : 저는 춘천마임축제 2009년까지 부예술감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나우 대표로 있습니다. 1부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공간에 대한 관심은 몸의 공간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마임이라는 몸의 공간과 외부 공간과의 관련을 통해 공간을 정의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르게 출발할 것입니다. 저는 기획자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토론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작은 공연들과 장소의 개념들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프로듀서와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공간이 갖는 장소, 장소가 공간성이 공연예술과 어떻게 접목이 될까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장르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가 저의 주제입니다. 최근의 관심은 축제가 잘 안 맞는 대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도시 공간이 장소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축제, 예술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서, 대도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아실 겁니다. 추상적 공간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일반인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있지만, 몸, 신체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동시대의 공연 양식과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거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확장될 것이고 장소와 공간성에 관한 문제들이 오늘 저의 관심사입니다.

***레이몽*** :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포머이고 조형예술가입니다. 저는 도시공간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산업공간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1981년에서부터 전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전시를 소개했고 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시공간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폐쇄된 도시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이기에 일부에게만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공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삶은 옆에 있는 브뤼노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브뤼노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만나고 많은 거리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술센터에 일하던 제가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리란 닫혀져 있지 않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수년 전 부터는 더 이상 일로토피의 단원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는 페스티벌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간, 관객들의 관계를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감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작품과 예술가를 변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희*** : 거리예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공간이란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거리예술가들이 활용하는 일반적인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종연*** : 공간,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주로 빈 광장, 마당 등 넓은 공간을 작품으로 활용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과연 장소성이 없는 공간인가 생각했을 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장이라는 부분을 관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소, 공간, 커뮤니티 안의 사회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축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기획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공간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리예술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동희*** : 축제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청중 웃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유다희*** : 저는 세 가지 장소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부여받은 장소. 기획자들이 만들어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할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가로써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장소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장소를 부여받았을 때, 작가로서 상상력을 많이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미션이 불쾌하다기 보다는 그를 통한 영감의 부여가 흥미로웠고 작가의 관점으로 풀어내야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번쨰, 내가 사는 장소로 삶과 연계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추리나 태안 기름 유출사건 등 그런 것에 대해 예술가로써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였습니다.

***최석규*** : 저는 공간 혹은 장소의 구분은, 1차적으로 공연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천이라는 광장 공간에 얼마나 관객이 올 것인가 하는 고민과 같은 겁니다. 공연에 대한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컨텍스트로서의 공간, 장소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sitespecific 프로그램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광주, 영국 두 개의 뮤지엄과 일본 작가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3개국 투어 예정중인데, 만약 장소가 옮겨지면, 어떻게 장소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 공간 자체로서의 관심보다는 공간이 서로 예술가들에게 자극을 주고 관계성을 통해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공간성이 실재적 물리적 공간성 관점의 작업과 다른 것입니다. 축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와는 다를 수 밖에 없죠

***유다희*** : 최근 작가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천구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주제로한 작품을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뤄진 작업 중에는 육교를 붉은 색으로 칠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예술이 이런 식으로 항상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레이몽*** : 공공장소는 누구에게나 속해있지만 아무에게도 속해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현재 상업 이미지가 모든 공공장소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공공장소 사용에 대한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거대 광고판이 나타났을 때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강요입니다.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을 띈 구호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빨간 색이 등장함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술이야말로 한 사회에서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희*** :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붉은 육교 사례는 6년 전 석관동 사례 같은데요. 사회적 이슈가 된 작업이나, 관습적 공간보다 개방되어 있음으로 겪었던 거리예술 작업의 어려움이나 미래 방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석규*** :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춘천 거리에서 축제를 하다보면 아이스크림 가게는 찬성하고 옷 가게는 반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에 사창가가 있는데 춘천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문제들. 결국 예술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거리, 관습적이지 않은 공연을 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 난장이라고 야외 공간을 대중화시킨 작업들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이슈화가 있다고 보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희*** : 공공미술이 정치적 사회적 기능으로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능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가를 위한 것인가, 대중을 위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작가의 관점과 대중의 관점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버스 프로젝트를 할 때, 신진작가들에게 당신들의 작업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중의 즐거움만을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대중의 관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통 울림)

***김진수(청중)*** : 거리예술에 대한 생각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리에서의 문제는 계속 있었고 작가들이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 저는 전통연희를 하는데 탈춤을 정의할 때 서울대 교수들도 정책적 의미에 따라 빨간 탈 대신 노란 탈을 쓴다고 봉산탈춤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런 문제는 계속 있어 왔는데, 기관을 통해 협력하고 작업했던 시기에 비해 발언권이 대중에게 넘어감으로서 가시화되는 문제일 뿐이지, 계속 있어왔던 문제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거리라는 표현을 쓸 때, 너와 나의 사이, 즉 연결의 공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텅 빈 거리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는 작업이 힘들다고 봅니다. 거리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인지, 융화될 것인지 등의 다양한 거리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현재 홍대에서 상인들을 대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현재 꾸물꾸물 자신들의 표현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라이브 아트도 준비 중입니다. 공공성으로 다가가지만 밀실로 다가가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길거리에서 보여 지는 작업보다는 작가들을 통해 재해석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다희 대표에게 질문합니다. 공공미술이 지나간 자리에 대한 흔적들, 그 시대의 역사성에서 나와서 한 번에 변한 문화 복지 담론에서 이뤄진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개인에 의해 과하게 독점된 공간을 열어 공공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위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장식적 의미의 예술은 현시대적인 것 같은데 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질문입니다.



***유다희*** : 대기업에서 중소 마을 벽화프로젝트를 제안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식적 미술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 마을이 벽화를 통해유명해지고 관광지가 된 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공공미술은 더 이상 예술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미를 바탕으로 사회성을 가져야 합니다. 작가들이 공공에 나오면서 자신의 작업과 그 작업에 대중이 이해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술가들이 관객, 대중에게 말 걸기를 하고 그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공미술에 새롭게 공공성,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윤종연*** : 폐쇄된 공간을 어떻게 대중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흥미롭습니다. 숨겨진, 가려진, 소외시켰던 사건 현실들에 저는 많이 주목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장소성에 대해 고민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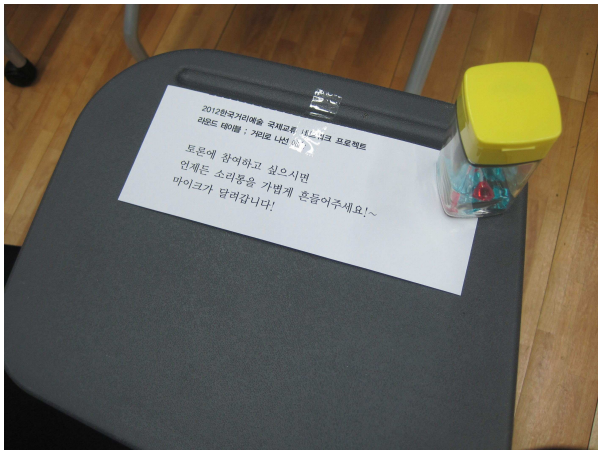
***유다희*** : 저는 그 지점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식으로 폐쇄된 공간 작가에게 폐쇄나 소외가 작업의 소스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극과 미디어에 살고 있는데,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도 그 동네의 일상성이 작가들에게 다가오는 공공성의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규*** : 폐쇄, 소외를 선택하는 것은 작가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책이 갖는 한 시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미술이든 축제든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 포퓰리즘이 되지 않고는 축제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정책이 일반의 현재 시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소리 통 울림)
***사회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중*** : 저는 2년 전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자화상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답사를 하면서 공간의 상징성(권력, 언론, 상업)에 대해 흥미를 가졌습니다. 공연 중에 비디오 카메라로 주변을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그것들과 싸우고 공간을 살리자고 했는데, 그 주변 공간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청중 웃음). 그러면서 저는 자본과 예술가가 정면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레이몽*** : (끼어들며) 전 예술이 자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웃음)




***청중*** : 저는 피하거나, 싸우다 지거나, 활용하거나, 재해석하거나 등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나 축제가 이런 면에서 공간을 피해가거나 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공간에 대해 항상 불충분하다고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 축제 기획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수택*** : 거리에 대한 제 의견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세 분은 거리의 특수한 성격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가가 특정한 영감을 받은 곳, 내 작품을 위한 곳, 특정 공간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해 세 분이 각각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역사성 공간성 특수성 이런 어려운 표현들 잘 모릅니다. 대신, 공간이 가진 특수한 성격에 많은 예술가들이 천착하는데 거리라

는 공간의 중립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작가들이 거리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라는 공간의 성격에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거리의 중립성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희*** : 몇 년 전 호수공원에서 본 공연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 호수 공원이라는 물이 없었다면 과연 그 공연이 나올 수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조동희*** : 임수택 감독님 말씀은 두 번째 세션에서 더 보실 수 있구요.(웃음) 다른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레이몽*** : 흥미로운 얘기들입니다. 저는 공공장소가 작가들의 활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거리 공공장소를 변화시키는데요, 현실적인 공간이 있고 예술가가 참여했을 때 상상력의 공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 중 상상력의 공간이 되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새롭고 다양한 것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술이 그 자체로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와 부딪치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이 유희로 시작되면 그 때부터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더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열면서, 큰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은 새로운 심리적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들이 광고 화면을 활용해서 기존의 광고를 변형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대중에게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머는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윤종연*** : 저를 너무 편협한 인물로 표현하셨네요(웃음).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축제에 잘 팔리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임수택) 감독님이 축제 감독님이라면 알맞은 질문이지만 거리예술센터라면 다르게 질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웃음). 거리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작가들이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극단의 경험처럼, 공공을 만나다 보니까 더욱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지게 되는데 축제가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석규*** : 저는 세상에 중립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광장은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광주 전남도청이 어떤 것들이 더 특수하고 덜 특수하다고 구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예술가의 상상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임수택*** : 우리나라작가들은 특히나 장소의 특성에 집착합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거리 등등 공통적인 속성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철성(청중)*** : 축제가 큰 공간이 있으면 골목도 있고 작고 소소한 생활 적인 공간들이 풍부해야 작가들이 뛰놀 수 있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정해주는 공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희*** : 유머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정치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디렉터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이 기획, 행정,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디렉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문화재단(청중)*** : 저는 문화커뮤니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는 공공장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도 나왔으나 다시 짚자면, 공공 이라는 말이 있고 누군가가 소유하지 않은 공간이지만 명명성이 있습니다.(시청 앞 광장 등) 이를 이용하는 타겟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장소에 대해 생각할 때 시청 앞 광장에 어떤 사람의 입장의 눈으로 이 공공의 공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은데, 퀄리티가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중의 입장으로서의 퀄리티를 생각해보았느냐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공, 거리에 대한 예술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축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 수요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관객들의 요구입니다. 관객들이 많이 모일 장소를 원하기도 합니다. 공연자의 욕구도 있으나 축제에 참여하는 관객의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선 예술"에서 공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는 뜻은, 이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에 대해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누구와 얘기하고 싶은가?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리에서 예술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하는가 각 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거리예술을 얘기할 때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몸꼴은 왜 나왔으며 누구와 어떤 것을 거리에서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희*** : 거리예술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각 단체들이 왜 나왔는지 얘기하면 더 좋겠다는 질문은 2부에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집중을 하자면, 대안 공간 제도권과 거리가 먼 공간이 왜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석규*** : 예술가의 입장은 아니지만 축제가 왜 거리로 나왔냐면 극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만나야 겠고, 그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겠다는 것이 1번 요인이었습니다. 마임이라는 언어가 거리예술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크기에 나온 것인지, 기존의 텍스트 중심인 연극을 들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인지. 즉 내가 하는 예술이 거리에서 관객과 만날 지점이 있다고 판단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프로그래머로서 예술 감독으로서 춘천이 가진 장소성이 맥락에 맞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수라장 개막 난장 역시 춘천의 호수, 즉 물 에 관련된 맥락을 통해서 기획 한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리 예술의 범주는 거리극, 마임이었고 장소성, 사회성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거리예술의 폭들이 미술과 관련되고 음악과 관련되는 등 장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다희*** : 저는 대학 때 미술은 배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고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사회속의 나로 존재하면서 내 작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관객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 전시에서 화이트 큐브 안을 걸으면서 누가 들어 와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나는 왜 작업을 하는가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누군가와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피드백에 대한 갈구가 있었기에 나왔다고 봅니다. 화이트큐브는 정해져있고 답답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는 큰 커뮤니티와 접촉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관객에 대한 지점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관객이 좀 더 다양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골마을에 공공미술을 한 팀이 했던 얘기가, 주민들이 처음에는 너무 촌스럽다며 싫어했으나 언론과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아 이게 뭔가? 간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인식이 변화 했습니다. 예술가도 좀 더 똑똑해지고 호응에 대한 부분 공감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종연*** : 저는 초기에는 극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피드백들, 다이렉트한 교류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노력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 들을 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받으려고만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주고 받을 수 있을 까 고민하게 되었고 제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깊숙한 개입을 고민했습니다.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아니라 정신적인 얘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공간 안의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대중에게 참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다양한 방법과 시도로써 거리예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브뤼노*** : 저는 공공예술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설명으로 유럽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5만 년 전부터). 숲이나 땅 등에 아무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용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몇 예술가들은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동굴 같은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길거리와 같은 곳이 아니라서 동굴에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동굴의 그림은 기억하지만 길거리의 예술은 잊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사시대의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사시대의 작가는 잊고 현존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조동희*** :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발언 이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궁금한 점 말씀해주십시오

***청중*** : 거리로서의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열린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성,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 이것들이 일상적인 것에서 예술을 만났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권위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라는 것보다, 지금 축제의 장으로서의 공간적인 거리의 특성도 있지만 나아가기 위한 방법론 적인 발전적 방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조동희*** : 실행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2부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다희*** : 그 질문은 고민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동네에서의 예술, 일상성에서의 예술. 지역에 있는 예술가, 주민과 만나고 지역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50여 가지가 넘는 거리예술을 해왔는데, 장소에 터를 가지고하는 일상성. 일상과 삶에서의 예술. 일상에서 예술은 무엇을 전복시키고 무얼 얘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지역의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저에게 찾아오거나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생겨서 제가 그들을 모으고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못 푼 문제 중에 노점상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과 모여서 구둣방에 대한 것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가치들을 찾고 더 나은 가치를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최석규*** :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부분에서 저희의 작업 중 레지던시 작업이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실험합니다. 작년의 실험은 헤드폰으로 일상의 공간을 다니면서 공간이 어떻게 음악과 작가의 이야기로 공간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입니다. 성북동 마을버스도 일상의 공간에 어떤 요소를 넣었을 때 연극적 공간이 되는가. 주로 아이패드. 헤드폰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 고민점 하나가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피지컬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요즘 디지로그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공연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유다희*** : 일상성에 대한 저의 키워드는 개개인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간과 감성을 되찾게 하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슬로건은 개개인의 감성과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청중*** : 대학에서 예술을 하면서 배설을 통해 정화가 된다 하셨는데 예술에서의 덕목은 생산성이

아니라 배설입니다. 그러나 공공성에 다가갔을 때 생산성을 요구받으면 고민이 되나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거리를 좁히는 초점입니다. 직접적인 연결성을 항상적으로 가질 수 없기에 미디어의 컨텐츠는 에로티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몸에 대한 욕구가 강한 컨텐츠가 시공간을 초월하기 위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미디어라는 간접장치를 굳이 그것이 가능한 거리예술에 해야 하는가 고민도 됩니다. 모아놓고 간접적인 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작업이 논의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로 성과가 날 수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간접장치는 아무리 좁혀진다 해도 부산물이므로 좀 더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더 낫고 생각합니다.

***최석규*** : 그것은 예술가의 선택이라 봅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상상력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동희*** : 예술표현으로서의 테크놀로지는 더 큰 논의점이라고 봅니다. 1부는 이정도로 정리하고. 잠시 후 열흘 동안 작업한 퍼포먼스가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창작워크숍 쇼케이스 ; 음식과 퍼포먼스














## 토론 2. 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예술

- 토론자 : 브뤼노 슈느블랑 (일로토피 예술감독), 박찬국(논아트밭아트 디렉터),
유창복(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 임수택(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과천축제 예술감독)

- 사회자 : 김종석 (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

***김종석*** :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부에서는 관객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또 하나, 관객과의 참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대칭점이 있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축제관련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한 분도 여기 계시고. 관객과 얘기할 때는 지역커뮤니티, 그런 것까지 확장시켜서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각자의 고민들을 털어내고 공유하면서 해결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진행방법은 1부와 유사합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서로 관여하면서 집단 토크형식으로 하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 네 분이 우선 토론한 후에 관객들과의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찬국 선생님부터 시작해주세요.

***박찬국*** : 돈 벌어야지와 같은 생각이나 돈 벌지 않고 왜 예술 하냐는 식의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했던 작업들을 소개해보자면 지금 보이는 게 논 아트 밭 아트인데요, 이것을 남양주시에서 했었습니다. 광릉 숲 그 동네 바로 옆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시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분들이 심하게 안티를 했었습니다. 무섭게 협박도 했었고. 도대체 그 동네에는 존재할 수 없는 임시 가건물을 세웠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미운 짓만 했었습니다. 논농사도 하고 오리도 키우고. 그런데 그 오리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대 거장의 건축가의 건축물 모형에 오리가 생활을 합니다. 건축물에서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오리를 보러 동네 사람들이 놀러왔습니다. 안티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걸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별것 아닌 걸로 딴지를 걸고. 결국 우리는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공간은 마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새롭게 공공공간으로 이용 되는 것에 대한 동네 유력자들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자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근의 못 쓰는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택*** : 축제를 한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매번 생각이 바뀌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제 관심은 관객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을 짤 때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수가 사회의 리더입니다. 축제도 오피니언 리더를 설득하자. 예술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축제를 짰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커스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남녀관계에 대한 서커스였습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축제를 짰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장님의 부인이 서커스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부인은 시장님에게 공연에 대한 좋은 평을 하셨고 시장님이 축제 프로그램이 좋다고 전달해주셨습니다.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장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던 것 입니다. 그러다가

해외 축제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몇몇 중요한 축제에서는 공식초청작의 경우 시내에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외곽에서 주변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수 예술가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저도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극이 다수의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요즘에서야 많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관객과의 관계를 봤을 때, 다수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 대중의 경우 대중문화가 하는 방식이 아닌, 순수문화가 하는 방식으로도 다수 대중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복*** : 거리예술과 동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는 극장을 10년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공연을 거리에서만 했습니다. 바깥에서 이미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아리를 하다보니까 일상적으로 공연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극장을 지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워크샵도 하고 뭐도 하고 마을회관인지 극장인지 아리까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술로 잘 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수용적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술 먹으면서 대화 하는 게 최고죠. 서로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소통하는데 예술을 하면서 소통하면 쉽고 편리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마을에서의 일상적인 예술하기가 폼도 나고 재미있고. 그래서 마을과 예술은 뗄레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뤼노*** : 일루토피의 예술감독이고 일루토피를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선 사회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비판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로 떠났었습니다.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일루토피라는 작은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오물을 도시에 파는 작업을 했습니다. 소통을 할 때는 무질서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1980년대는 공공거리 같은 것이 있어서 무질서를 갖고 작업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직접 만나서 직접 얻어내야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장이 아니면 어디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예술가들이 몰려가서 예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데모를 했었습니다. 1992년에 거리예술을 위한 문화적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프랑스거리예술센터가 생겼고 해외의 공연 팀들이 공연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에 작업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차츰 환경과 문화와 관련된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류를 위한 공연도 했었는데, 문제는 보존지역을 방문한 자들이 새를 보는 방법을 몰라서 배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스티벌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둥지를 떠나는 새들의 컨셉이었습니다. 보호 공원 같은 경우, 예술가들과 새들이 사는 시간이 각각 있다. 일루토피는 25명의 배우들이 있는 극단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관객들과는 서로 혼합해서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는 강물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강 반대편에 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공연이라는 것을 초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 안에서 건물 안에서 등등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객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동네 주민들을 관객으로 만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저희가 주민을 관객으로 변화시키자는 생각 없이 작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들을 소비자로 변모시키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라는 사람은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사회 옆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단순히 관객에게 흥미를 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김종석*** : 네 분의 입장들이 재미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과 예술가, 공연과 일상. 대중성과 작품성. 이런 부분들의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에서 거리예술이라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관객은 무엇인가. 관객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택*** : 1부에서 공공 공간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특수한성격의 공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난 그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리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거리예술 축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성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다양성을 봐야 합니다. 하나 둘 셋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객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관객에게 공공성. 거리예술가들이 거리예술의 공공성, 사회성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개인적인 고민,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극이 더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도발적으로, 성미산 마을극장의 연극이 그리고 논밭에서 하는 행위들이 예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술이 뭐냐부터 따질 수 있는데 관객의 참여에서 얘기하자면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술가의 지위 아래 관객은 엑스트라 정도입니다. 관객참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성미산 마을 주민들에 연극 예술가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국*** : 제가 반대의견을 내놓으려는데, 일반적인 거리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립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장소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술가들만의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것인데. 논밭에서 지금까지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도시 개발지에서의 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의미가 있냐. 물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공간에 상상을 할 수 있고. 예술이라는 폼을 정해놓고 정의하는 것 그런 과정 자체가 예술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수택*** : 박찬국 선생님은 예술 교육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국*** : 예술 교육과 예술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오리가 공연이라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공연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 전체가 일상이라고 하는 공간의 성격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예술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김종석*** : 성미산은 예술입니까

***유창복*** : 저는 예술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만 예술하지는 않고. 까페에서도 하고 어린이집 마루에서도 합니다. 거리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니까 공연장 아닌 모든 곳은 거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니까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관객들은 낯선 모습을 보는 거고. 제게 관객과 배우와의 구분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소통한다는 느낌입니다. 어디를 관객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예술인가 아닌가.

***브뤼노*** :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술 교육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

니다. 그리고 또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상상하게 하고 이미지를 읽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네비게이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가와 일반 사회인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택*** : (창작워크숍)공연 아주 잘 봤는데,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연출했나요? 성미산 마을 극장의 유창복 선생님은 예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예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논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돌아다녀봤는데 그러한 예술들을 새로운 예술, 시대에 앞서가는 예술이라고 고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혼자 일기에 써야 합니다.

***김종석*** : 예술이냐 노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국*** :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예술이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격자체가 항상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방가르드라는 현대 예술, 거리 예술은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형, 추구해야 하는 현대적인, 동시대적인, 전형처럼 받아드려지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지금까지 있었던 예술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관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했는데. 관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브뤼노*** : 저는 여기서 조형 예술과 공연예술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형 예술은 고립된 형식으로 작품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공연예술은 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유적으로 조형 예술가는 고독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이고 공연 예술가들은 집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공연예술이 더 수월합니다. 조형예술은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김종석*** :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객에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미산에서 먼저.

***유창복*** : 예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을에서의 예술은 아마추어 예술이지만 모두 다 그러한 욕구들은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의 과정은, 축제의 컨셉을 미리 정하지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은 모아서 그리고 이후에 그것들을 배열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참여! 참여라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놓는 참여를 하는 거고. 자기 부스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컨텐츠를 들고 나옴과 동시에 다른 컨텐츠를 구경합니다. 이런 경우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 그것이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국*** :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 그런 정도의 마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은 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을에 처음에 들어갔더니 아파트 사람이 입주한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아파트 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쁘게 된 일이 있냐 했더니, 마을에서 축제를 했고 윷놀이를 했는데 동네에다가 디스코 메들리를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노는 중에 갑자기 경찰이 와서는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민원신고가 왔다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항상 해오던 것들인데 그것에 태클이 들어왔으니까요. 아파트 사람들 같은 경우, 마치 이 땅을 산 것처럼 생각합니다. 관객들을 모이게 하는 방식이 뭐냐. 마을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나 양쪽에서 전부 다 지금까지는 없어왔던 방식으로 했습니다. 관객들이 어떤 수용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냐 고민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수택*** : 어느 경우나 예외는 있습니다. 성미산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지향한다고 예술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예술의 맛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의 문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극단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의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시민들이 예술에 참여시킨다. 이것은 낭만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라 하는데, 공동체가 어디 있나요? 참여하고 축제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소비한다는 것은 착각이자 환상입니다. 가령,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술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입니다. 참여 문제에서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낭만적인 기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미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독특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복*** : 그런 경우 많습니다. 축제가 2000명이 모여야 축제인가요? 10명이 모여도 축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관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놀면 그게 축제인 것입니다.

***박찬국*** : 거리예술센터는 거리 예술이 많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임 감독님 생각을 들으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임 감독님은 거리예술의 입장이 아니라 임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합니다.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창복*** : 성미산은 농촌 마을은 아닙니다. 마을이라 하는 것은 요즘은 자연스럽게 주워진 마을이 아니라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택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에서 생겨진 것. 그것이 마을입니다. 장소성과 함께 하는.

***레이몽*** : 사회의 일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관련이 된 이상적인 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만남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체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술작품이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술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화국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택*** : 이상적인 공화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술작품이 없어질 것이다?



***레이몽*** :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술이 하는 역할은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예술은 넉넉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가 필요한 것은 넉넉함, 평등함. 그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브뤼노*** :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세상의 도시라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말하는 20세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세계도시로서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고민은 자본주의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임수택*** : 이상적인 공화국에서 예술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철학자, 사회학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가 생겨나더라도 예술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팔린다고 좋은 예술인건 아닙니다. 많이 팔리면 오히려 그런 예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바이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매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좋은 상품들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걸러지는 과정이 있을 경우, 걸러지는 과정이 소비자인 관객이나 시민들에게 양질의 예술을 제공하고, 예술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를 통해서 같이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에서 완전히 시장을 없애라.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종석*** : 필드에서 질문도 하시면서 논쟁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중(유영봉)*** : 제가 좀 답답했던 건, 박찬국 선생님이랑 임수택 선생님이랑 유창복 선생님이랑 각각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이 조금 다르고, 그런데 개별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다 같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택 감독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르의 출발점이 다른데, 장소도 있지만 시간도 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박찬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리예술센터의 존폐와 모순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박찬국*** : 거리예술센터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웃음) 미술사에서는 이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제 작업에서도 연극성이 강한 퍼포먼스가 있고 관객을 미리 예상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조형예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중(유영봉)*** : 임 감독님께 들었던 것 중에서 감동받았던 것은 거리극이라 하지 않고 거리예술이라 한 점. 제 개인적으로 목표로 했었던 작업은 박찬국 선생님과의 작업입니다. 조형예술이나 여러 예술과 거리를 너무 두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좁히면서 같이 생각해봐야 하는데. 유창복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놉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우리가 가둔 것들을 털어내자 해서 이 자리가 마련 된 것입니다.

***청중(이철성)*** : 과천에는 성미산보다 많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홍대에 있는 성미산하고 과천 축제가 유명합니다.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 50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축제가 밑바닥에서부터 공연팀들을 자발적으로 어

떻게 끌어안을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택*** : 사전적으로 공동체는 혈연관계에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혈연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위한 이 관계들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청중(이철성)*** : 공동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거리예술이 나왔다면 대안적인 예술이 대안적인 삶과 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공동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이것이 예술로 될 것인가.

***청중(김진수)*** : 혈연 공동체조차도 흩어지지 않고 견고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대한 의미,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임수택 선생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터전 비전에 대한 것을 탐색을 했을 때 거리를 중립적으로 두고 소통해보자. 이 부분과 예술가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자는 것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청중*** : 컨퍼런스 타이틀로 인해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객의 확장과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각각의 세분이 다른 방식의 작업을 하고 있다. 유창복, 박찬국님은 커뮤니티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에 비해 임수택님은 좀 더 대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각각의 포인트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를 잡자면 어떤 것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창복*** : 저희 같은 경우, 보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게 하는 것들을 부추기고. 동아리를 많이 만들게 한다거나, 교육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 노출시킵니다. 아이들의 경우 극장을 놀이터로 압니다. 공연의 경우 아이가 공연을 보다가 극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극장은 일탈의 공간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몽 :*** 전문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중에서 제약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가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박찬국*** : 작가로써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상상력 안에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무작정 예측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간 단위가 길고, 변화하면서 접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객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다른 상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슈로 갖는 것은 권력관계입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공장안의 이주 노동자. 관객이 개발된 관객이라기보다는 주목되지 않은 행동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런 지점에서 권력관계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 거리예술에서도 같이 도입시켜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수택*** : 과천 축제 같은 경우 관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관객을 어떻게 끌어 들이냐에 대해

서 이야기해보자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싫어할거야 라고 생각했던 공연이 반응이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기획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예술 감독인데 기획자들이 관객을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술에 충실 하는 것 그것이 관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중(김진수)*** : 미술 작가 같은 경우 개인의 작가가 지역사회의 전체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의 배우가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힘듭니다. 극장 자체가 배우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리에 나간 배우는 관객에게 집중을 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리가 어떤 의미를 구축시킬 수 있는지, 관객을 어떻게 수용시킬 수 있는지 비젼을 누군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레이몽*** : 혼합된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지혜가 공동으로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알고 있는 도시라던가 공간 같은 경우, 공연을 할 경우 잘 알던 공간이 상상적인 것을 열어서 변모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객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국 소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엄청난 파노라마적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공간을 확대하는 것. 도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셋째는 관객과 예술가를 가깝게 하는 것,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라디오나 각종 매체의 예술에 관련된 질문들은 컨텐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관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관객으로 인해 전파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만 명의 관객이 있다고 그것이 성공적인 공연이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종석*** :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서 앞으로 열 번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서로 많이 만나고 거리예술센터가 좀 더 확장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5.
# 부록
# ; 언론보도내역
# ;; 홍보물 이미지

**1) 언론보도 내역**

| 번호 | 일자 | 언론사 | 제목 |
|---|---|---|---|
| 1 | 2012.7.24 | 아주경제 | 라운드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 26일 개최 |
| 2 | 2012.7.24 | 문화예술TV21 | 한국과 프랑스, 거리예술의 현재를 말하다 |
| 3 | 2012.7.24 | 유니온프레스 | 프랑스 거리예술이 대학로에도 펼쳐진다면? |

| 아주경제 | 2012.7.24 | 한국과 프랑스, 거리예술의 현재를 말하다 |
|---|---|---|
| | | http://www.ajnews.co.kr/kor/view.jsp?newsId=20120724000590 |





» [분당] 자연스러운 쌍꺼풀수술?
» [수원] 퍼펙트라식이란?
» V라인을 하루만에?!
» 겟잇뷰티 김정민 아이디양악추천!!
» 속보)의료실비 보장범위 축소 추진?!
» 내가 받을, " 연금 수령액 " / 얼마일까?
ADITIZER
투데이 포토




# 라운드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 26일 개최

기사입력 2012-07-24 17:14 | 기사수정 2012-07-24 17:14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거리예술센터(대표 임수택)가 공동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이 26일 오후 1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일반적인 강연 형태의 형식적인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거리예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야외 공연예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예술계와 소통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은 프랑스 대표적인 거리예술단체 일로토피(Ilotopie)와 국내 창작자들이 함께 일로토피의 공연 <기쁨의 메뉴 Menus Plaisirs>를 한국버전으로 제작, 발표하는 창작워크숍 쇼케이스를 갖는다.

1980년에 창단된 일로토피(Ilotopie)는 '일(île, 섬)', '위토피(utopie, 이상향)'의 합성어로 대중공간에 대한 연구와 예술표현을 주제로 여러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토론 주제는 △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예술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작업 활동과 관점을 나누어 거리예술의 현재를 밀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사회는 조동희 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과 김종석 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일로토피 예술감독 브뤼노 슈느블랑(Bruno Schnebelin), 조형예술가 레이몽 블라(Raymond Blard)를 비롯해 임수택 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유다희 공공미술 프리즘 대표, 윤종연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유창복 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 최석규 AsiaNow 프로듀서, 박찬국 논아트밭아트 디렉터가 참여한다.

한편, 쇼케이스에서 발표된 공연은 올 가을 국내 거리예술축제 '과천축제(구 과천한마당축제)'와 '하이서울페이스티벌'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 hyun@ajnews.co.kr

| 문화예술TV21 | 2012.7.24 | 한국과 프랑스, 거리예술의 현재를 말하다 |
|---|---|---|
| | | http://www.mytv21.kr/sub_read.html?uid=16751&section=sc195&section2= |



# 한국과 프랑스, 거리예술의 현재를 말하다

김영재/보도

RealClick
왕초보영어스터디 8월모집 보험료 1원도 안오르는 100세암보험
주식100만원으로 1억만드는 투자기법 수원)기미,여드름 왜 치료못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거리예술센터(대표 임수택)가 공동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이 7월 26일(목) 오후 1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한국과 프랑스, 거리예술의 현재를 말하다 ©김영재/보도

□ 라운드 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일반적인 강연 형태의 형식적인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거리예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야외 공연예술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예술계와 소통하는 자리이다.

□ 특히 이날은 프랑스 대표적인 거리예술단체 일로토피(Ilotopie)와 국내 창작자들이 함께 일로토피의 공연 <기쁨의 메뉴 Menus Plaisirs>를 한국버전으로 제작, 발표하는 창작 워크숍 쇼케이스를 갖는다.

□ 1980년에 창단된 일로토피(Ilotopie)는 '일(île, 섬)', '위토피(utopie, 이상향)'의 합성어로 대중공간에 대한 연구와 예술표현을 주제로 여러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 토론 주제는 △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예술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작업 활동과 관점을 나누어 거리예술의 현재를 밀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 사회는 조동희 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과 김종석 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일로토피 예술감독 브뤼노 슈느블랑(Bruno Schnebelin), 조형예술가 레이몽 블라(Raymond Blard)를 비롯해 임수택 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유다희 공공미술 프리즘 대표, 윤종연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유창복 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 최석규 AsiaNow 프로듀서, 박찬국 논아트발아트 디렉터가 참여한다.

□ 또한 쇼케이스에서 발표된 공연은 올 가을 국내 거리예술축제 '과천축제(구 과천한마당축제)'와 '하이서울페이스티벌'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 유니온프레스 | 2012.7.24 | 프랑스 거리예술이 대학로에도 펼쳐진다면? |
|---|---|---|
| | | 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66541 |



# 문화 프랑스 거리 예술이 대학로에도 펼쳐진다면?

문화뉴스

이혜원 기자 @dipsylee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2.07.24. 17:40



예술가들로 넘쳐나는 유럽의 거리가 서울 대학로에도 펼쳐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거리예술센터(대표 임수택)가 공동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이 오는 오는 26일(목) 오후 1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라운드 테이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일반적인 강연 형태의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거리예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예술계와 소통하는 자리다. 토론에서는 공간탐험과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street), 관객의 확장과 개입 등에 대한 전문가들 다양한 관점을 다룬다.

사회는 조동희 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과 김종석 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일로토피 예술감독 브뤼노 슈느블랑(Bruno Schnebelin), 조형예술가 레이몽 블라(Raymond Blard)를 비롯해 임수택 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유다희 공공미술 프리즘 대표, 윤종연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유창복 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 최석규 아시아나우(AsiaNow) PD, 박찬국 논아트밭아트 디렉터가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랑스 대표 거리예술단체 '일로토피(Ilotopie)'와 국내 창작자들이 일로토피의 공연 <기쁨의 메뉴(Menus Plaisirs)>를 한국버전으로 발표하는 창작워크숍 쇼케이스도 진행된다. 일로토피(Ilotopie)는 대중공간에 대한 연구와 예술표현을 주제로 1980년에 창단 이후 다양한 실험적인 작업들을 실시해오고 있다.

쇼케이스에서 발표된 <기쁨의 메뉴>는 올 가을 국내 거리예술축제인 과천축제(구 과천한마당축제)와 하이서울페이스티벌에서도 상연될 예정이다.

[유니온프레스=이혜원 기자]

2) 웹전단


2012한국거리예술센터
국제교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 창작 워크숍 : 음식과 퍼포먼스(가제)
0716(Mon)-0726(Thu), 문래예술공장
* 라운드 테이블 : 거리로 나선 예술
0726(Thu), 대학로 예술가의집
라운드 테이블
; 거리로 나선 예술
07.26(Thu)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토론 01
13:30 ~ 15:30
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토론자 레이몽 블라_퍼포머,조형예술가
유다희_공공미술 프리즘 대표
윤종연_몸꼴 대표,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최석규_AsiaNow 프로듀서
사회자 조동희_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
리셉션 / 쇼케이스
15:30 ~ 16:00
창작워크숍 쇼케이스; 음식과 퍼포먼스(가제)
연출 브뤼노 슈느블랑_일로토피 예술감독
레이몽 블라_퍼포머,조형예술가
협력 이승준_배낭속 사람들 대표
*프랑스 거리예술단체 일로토피가 국내 창작자들 대상으로
창작워크숍을 진행하여 라운드 테이블 및
국내 공연예술축제에서 창작결과물 발표
토론 02
16:00 ~ 18:00
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 예술
토론자 브뤼노 슈느블랑_일로토피 예술감독
박찬국_논아트밭아트 디렉터
유창복_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
임수택_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과천축제 예술감독
사회자 김종석_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
참가신청
기간 7월 23(월)까지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접수
참가비 무료
문의 문화이끔이 꼴 (02.2636.4861)
* 본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어, 프랑스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당일 참가자 등록은 13시부터 진행 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리예술센터는 기존 거리극 중심의 활동에서 시각예술, 무용, 음악 등 보다 다양한 예술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여
장르 간 소통과 예술가들의 만남을 위한 장이 되고자 합니다. (http://cafe.daum.net/streetarts)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거리예술센터 | 주관 한국거리예술센터

3) 홍보전단


2012 한국거리예술 국제교류 네트워크 프로젝트
라운드 테이블
; 거리로 나선 예술
2012. 7. 26 (목)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13:30 ~15:30
토론 1. 공간탐험, 예술 공간으로서의 거리
토론자
: 레이몽 블라(퍼포머, 조형예술가)
: 유다희(공공미술프리즘 대표)
: 윤종연(몸꼴 대표,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 최석규(AsiaNow 프로듀서)
사회자
: 조동희(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장)
15:30 ~ 16:00
쇼케이스 & 리셉션
창작워크숍 쇼케이스 〈음식과 퍼포먼스〉
16:00 ~ 18:00
토론 2. 관객의 확장과 개입, 공동체 예술
토론자
: 브뤼노 슈느블랑(일로토피 예술감독)
: 박찬국(작가, 논아트밭아트 디렉터)
: 유창복(성미산마을극장 극장장)
: 임수택(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 과천축제 예술감독)
사회자
: 김종석(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
참가신청
: 기간_ 7월 23일 까지
: 방법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접수
: 참가비_ 무료
문의 : 문화이끔이 꼴 02)2636-4861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거리예술센터 주관 한국거리예술센터

# 한국거리예술센터

**2007년 국내 척박한 문화예술계 안에서 거리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거리예술 창작 작업을 독려하고 발전하기 위해, 거리예술에 뜻 있는 축제예술감독, 연출가, 기획자, 평론가 등이 모여 "한국거리극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연구 뿐 아니라 거리예술의 발전에 힘쓰기 위해 100여 명의 국내 거리예술 창작자, 거리예술축제 기획자, 비평가 등 거리예술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2009년 한국거리예술센터를 창립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거리극 중심의 활동에서 시각예술, 무용, 음악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장르 간 소통과 예술가의 만남을 위한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거리예술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 젊고 실험적인 예술단체의 출현, 도시문화정책 개발 및 실행에 대한 관심 등 예술계 내부에서 시작된 활발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한국거리예술센터는 거리예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 창작활동 지원

창작자와 매개자의 만남의 장인 거리예술장터 개최, 거리예술 창작의 근간이 되며 지역사회와 만남의 역할을 하는 거리예술 제작 공간 마련
정부 및 예술지원기관과 협조하여 거리예술 창작 지원제도를 수립

##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활동 기획 및 지원

거리예술 축제를 중심으로 거리예술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 예술가 창작 포럼과 워크숍을 주최,
국내 · 외 거리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교류

## 체계적인 거리예술 관련 정보 제공

국내 거리예술관련 축제, 예술단체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한 거리예술 DB구축, 월간 웹진 '거리예술' 발행, 거리예술관련 전문 서적 기획,
해외 거리예술 자료 조사 등 거리예술 관련 자료 구축

---

**한국 거리예술센터는 거리예술축제, 예술가, 기획자, 비평가 등 다양한 거리예술 종사자들의 격의 없는 만남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리예술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한국거리예술센터 사무국**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 3가 54-46 3층 | Tel. 02)2636-4861 | http://cafe.daum.net/streetarts